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45호 【루계 제24558호】 주체103(2014)년 5월 25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천마전기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천마전기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황병서동지, 장정남동지, 변인선동지, 윤동현동지, 박정천동지, 홍영칠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는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공장의 로동계급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 표식비에 대한 해설을 들으신 다음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몸소 터전을 잡아주시여 일떠세워주시였고 현지지도자욱을 새기시며 공장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천마전기기계공장의 발전력사속에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귀중한 사적물과 자료들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손길아래 공장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행로를 감회깊이 돌이켜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방방곡곡 그 어디나 마찬가지로 천마전기기계공장이 자리잡고있는 일대에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발자취가 수많이 어리여있다고, 공장입구에 들어서니 조국이 어려운 시련을 겪던 고난의 행군시기를 비롯하여 여러차례나 이곳을 찾으시고 로동계급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신 장군님의 영상이 떠올랐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떨쳐나선 공장의 로동계급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헤쳐나가며 맡겨진 생산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을 생산증산으로 옹호보위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언제나 잊지 말고 성능높은 전기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하는것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을 료해하시고 현대화를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기계들을 보시고 제품들이 현실에서 큰 은을 나타내고있을뿐아니라 수요도 대단히 높다고 하시면서 종업원들이 당의 의도를 받들고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신식전기기계들을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 보내주자면 공장의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다용도화된 전기기계들을 대량생산할수 있게 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축성하기 위한 사업을 통이 크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들을 사용자들속에서 호평을 받을수 있게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만들자면 생산공정의 CNC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과학기술을 떠나서 새 제품개발과 생산장성, 질제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려놓고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주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생산자들이 아무런 불편이 없이 로동생활과 문화정서생활을 할수 있도록 편의봉사시설들은 물론 합숙과 문화회관도 그쯘하게 꾸려주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며 공장의 생활환경을 근본적으로 일신시키는데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신께서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기업소를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와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일신시키며 현대적인 전기기계들을 쾅쾅 생산함으로써 부강조국건설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사 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위한 력사적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 이어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가 진행되여 우리 당사상전선이 들끓고 온 나라에 약동하는 기상이 차넘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당면한 당선전사업방향에 대하여》**를 발표하신 날을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56(1967)년 5월 25일 당사상사업부문 일군들앞에서 하신 이 연설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강령적지침이다. 연설의 기본정신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여 우리 당을 사회주의위업을 향도하는 정치적참모부로 강화발전시키고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자는것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천명한 불후의 고전적로작이 발표됨으로써 수령의 당으로서의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성격을 뚜렷이 하고 우리 당을 사상적전일체로 공고히 해나갈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되였다. 이때로부터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위한 투쟁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주체의 사상론의 기치높이 전진하는 우리 혁명의 필승불패성이 더욱 힘있게 떨쳐지게 되였다. 1970년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와 새로운 주체100년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위한 혁명적진군은 력사의 이날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5월25일로작은 사상전으로 일관되여온 조선로동당건설사와 우리 조국청사에 영원불멸할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보이다.

우리는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힘있게 다그쳐온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며 사상의 위력으로 새로운 주체100년대진군의 자랑찬 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의 력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여온 영광스러운 력사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상사업의 기본임무는 전당과 온 사회를 수령의 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이다. 군대와 인민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를 철저히 개조해나갈 때 사회주의는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끄떡없이 승승장구해나가게 된다.

오늘 우리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중대한 력사적시기에 살며 투쟁하고있다. 천만군민을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우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우리앞에 나서고있다. 이 력사적과제를 가장 용의주도하게, 가장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하며 그러자면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 연설에서 천명하신바와 같이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 이것이 현시기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위한 투쟁의 종자이며 핵이다. 지금이야말로 **김일성**주의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빛나게 실현해나가던 1970년대와 같이 온 나라가 사상전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져야 할 때이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 최후승리의 지름길이 있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위한 오늘의 력사적진군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혁명의 명맥은 사상에 의하여 지켜지고 이어진다. 하나의 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순결하게, 드팀없이 계승될 때 혁명의 종국적승리가 이룩될수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조선혁명은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백전백승의 자랑스러운 력사를 수놓아왔다. 지난 20세기에 우리가 두차례의 혁명전쟁과 복구건설, 두단계의 사회혁명과 여러 단계의 사회주의건설 등 심각하고 방대한 과제를 빛나게 수행하여 세인을 놀래울수 있은것은 위대한 혁명사상이 있고 그에 기초한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해왔기때문이다. 조선로동당이 세대와 세기를 이어 변함없이 높이 추켜든 사상적일색화의 기치는 세계적인 정치풍파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사회주의압살책동속에서도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굳건히 담보한 강위력한 보검이였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안고있는 진리의 힘은 무궁무진하다. 이 위대한 혁명사상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가고가려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신념은 확고부동하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이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신념화한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될 때 우리 혁명은 주체의 항로를 따라 승승장구하게 될것이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위한 력사적진군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우리에게는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것이 많다. 그 모든것가운데서도 제일 자랑스러운것은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이다.

우리의 일심단결은 가장 공고한 사상의 지적통일체이다. 천만군민이 오직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의 사상만을 따르고 당이 가리키는 한길로만 억세게 나아가고있다. 류례없이 간고했던 지난 세기 90년대 고난의 행군, 강행군에서의 승리는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일심단결된 군대와 인민, 천만의 심장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고동치는 나라는 그 어떤 힘으로도 굴복시킬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이 위대한 일심단결로 하여 우리 조국이 불패의 정치사상강국으로 온 누리에 빛을 뿌리고 우리 민족의 존엄과 영예는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였다.

세계의 진보적인류가 부러워하고 원쑤들까지도 공포와 위압감속에 인정하지 않을수 없는 우리의 일심단결은 선군조선의 힘이며 강성국가건설의 천하지대본이다.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강도높이 들이대여 전당과 온 사회를 수령결사옹위의 결정체, 당정책결사관철의 의지로 끓어번지는 행동의 통일체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는데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가 있다. 위대한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을 실현해나가는 우리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는것은 제국주의와의 전면대결전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지난날에도 그러했지만 진보와 반동,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사이의 치렬한 대결과 경쟁은 날을 따라 더욱 첨예해지고있다.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은 총부리를 맞대고있는 전장에서뿐아니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국주의를 압도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에게는 자주적근위병으로서의 높은 존엄과 행복한 삶을 담보해주는 위대한 사상이 있으며 제국주의의 온갖 도전과 압살책동을 정치사상적우월성으로 타승해온 영광스러운 전통이 있다. 닭알로 바위치기라고 하지만 닭알에도 사상을 재우면 바위를 깨뜨릴수 있다는것이 우리 당이 주장하는 사상제일주의이다. 반제군사전선에서의 통쾌한 전승을 안아올 제일가는 무기도 투철한 혁명사상으로 만장약된 백두산총대이며 경제과학, 문화전선에서 제국주의를 압도하고 대비약적혁신을 일으키는 추동력도 당의 사상과 정책으로 무장한 인민의 정신력이다.

사상의 위력으로 적들을 압도하며 백승을 떨쳐나가는 우리의 력사적진군은 계속되고있다. 우리는 강력한 사상전의 불바람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을 짓뭉개버리며 새로운 주체100년대에도 선군조선의 존엄과 강대성, 불패의 위용을 높이 떨쳐나갈것이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위한 오늘의 총진군은 승리가 확고히 담보되여있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고계신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불멸의 지침을 밝혀주시고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를 마련하시여 온 나라에 혁명적인 사상공세, 선전선동의 된바람이 세차게 일어나도록 하신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의 절대적진리성과 변혁적위력이 더욱더 힘있게 과시되고있으며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앞길에 끝없이 밝은 미래가 펼쳐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드는 길에 정치사상강국, 백두산대국의 높은 존엄과 영예가 있으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가 있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깊이 간직한 철리이다.

우리는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위한 력사적진군에 더 큰 박차를 가함으로써 사상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조선혁명의 불패성을 힘있게 떨쳐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인민대중의 확고한 신념으로 만드는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사상공세를 드세차게 들이대야 한다.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모든 사회성원들이 참다운 혁명가, 당의 충직한 혁명전우로 삶을 빛내이게 하는 귀중한 사상정신적량식이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할때 누구나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다할수 있으며 값높은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갈수 있다. 우리 당이 다시한번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총서인 불후의 로작들과 당문헌들을 환히 꿰들도록 하기 위한 학습열풍을 일으키는것으로부터 사상공세의 돌파구를 열어나갈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한 숭고한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각급 당조직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로작들과 당문헌들에 대한 학습을 면밀히 계획화하여 엄격히 진행하며 중도반단함이 없이 완강하게 내밀어야 한다. 문답식학습방법을 비롯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그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우월한 방법과 형식들을 적극 활용하여 유일사상교양의 실효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을 사업과 생활의 신조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도록 사상교양사업을 참신하게 들이대야 한다. 매 시기 제시되는 당정책을 대중이 스스로 공감하고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일수 있게 론리정연하고 설득력있게 해설선전하며 누구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제 집안일처럼 환히 알고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정책으로 무장하기 위한 사업에서는 순간의 침체와 답보도 허용될수 없다. 굴러가는 돌에도 이끼가 낀다고 학습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머리가 비게 되고 사상적으로 병들기마련이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학습하고 또 학습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며 사업과 생활의 모든 계기와 공정이 자신을 **김일성-김정일**주의정수분자로 준비해나가는 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심화시켜 사회주의수호전이 벌어지는 모든 전선, 모든 초소에 백두의 혁명정신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교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혁명의 개척기로부터 수령의 령도밑에 창조된 모든 우수한 정신적유산이 세대를 이어 계승될 때 혁명위업이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다.

올해 1월 마두산혁명전적지를 찾으시여 혁명의 대가 바뀔수록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조직하시여 온 나라에 백두산바람이 휘몰아치게 하시였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모란봉악단이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솟아있는 량강땅에서 항일유격대식예술공연을 진행하도록 하신 숭고한 뜻을 깊이 새겨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혁명령도사가 집대성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투쟁과 생활의 교과서로 삼고 깊이 연구체득하며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비롯한 혁명전통도서들에 대한 학습을 심도있게 하여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을 강성국가건설의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백두밀림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의 총대력사, 신념과 동지애의 력사, 자력갱생의 력사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이어지게 하여야 한다.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답사와 참관을 실속있게 조직진행하여 그 과정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백두의 넋과 혁명적기상을 깊이 심어주는 중요한 사상교양계기로 되게 하여야 한다.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력사적시기의 요구에 맞게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5월25일로작에서 제시하신 중요한 사상이다. 우리 당이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행정에서 애국주의교양을 일관하게 강조하여온것은 전체 근로자들이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각급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에게 자기의 고향마을과 일터를 사랑하는 정신을 깊이 심어주어야 한다.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속에서 발현되는 애국적소행들을 귀중히 여기고 높이 평가해주며 그 모범을 누구나 적극 따라배우게 하여야 한다. 특히 일군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애국적진군의 선봉에 서서 인민들과 함께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게 하여야 한다.

당사상일군들부터 먼저 혁명화되여야 하며 투철한 **김일성-김정일**주의정수분자가 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혁명적인 사상공세는 사상일군들의 패배주의를 불사르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모든 당선전일군들은 오늘의 사상공세의 성패, 대중의 정신력발동의 성과여부가 자신들에게 달려있다는 자각을 지니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 지난 시기의 경직된 사고방식과 일본새에 대담하게 종지부를 찍고 당이 바라는 새로운 높이에서 사업을 참신하면서도 생기발랄하게 해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하여 피타게 노력하는 정열가, 대중을 수령결사옹위, 당정책결사관철의 투사들로 철저히 준비시켜나가는 훌륭한 교양자, 당정책을 선전하고 천만군민의 심장에 투쟁의 불을 지피는데서 막히는것이 없는 팔방미인, 이것이 현시기 우리 당이 바라는 참된 당사상일군이다. 모든 당사상일군들이 당의 목소리를 제때에 알려주기 위해 하루밤에도 수십리길을 걸으며 말은 단위에서 집단적혁신이 일어나게 하는데서 보람과 긍지를 느낄줄 알 때 대중의 정신력은 비상히 앙양되고 강성국가건설의 전진속도는 더욱 빨라지게 될것이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는 우리 혁명의 표대이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모두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자.

경제강국건설에서 혁신의 봉화를 더 높이

농장벌을 들끓게 하는 사상공세의 포성

각지 당조직들에서

온 나라 농장벌들이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포성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각지 당조직들은 사상의 포문을 열고 농장벌들마다에서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댐으로써 당면한 모내기전투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당원들,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사업에서 우리 당의 전략전술은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으로 사상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온 나라가 혁명적대고조의 불도가니로 부글부글 끓게 하는것입니다.》

황해남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올해에 농업부문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으로 내세운 당의 높은 뜻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일제히 도안의 농업근로자들속으로 들어갔다.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전투장으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연안군 오현협동농장,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에 달려나간 당사상일군들은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무릎을 마주하고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바쳐오신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로고와 심혈에 대한 감동깊은 사실들을 들려주어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또한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올해농사에 깨끗한 량심과 성실한 노력을 아낌없이 바치는 선군시대 농촌혁명가들로 튼튼히 준비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재령군당위원회, 신천군당위원회, 배천군당위원회에서도 군안의 선전선동력량과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농업근로자들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와 전국농업부문 분조장대회정신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을 기동적으로, 집중적으로 벌려 당면한 모내기전투에서 련일 혁신이 일어나게 하고있다.

황해북도당위원회에서는 당사상전선의 전초병들인 당초급선전일군들의 역할을 높여 도안의 농장벌들마다에서 당의 목소리가 잠시도 중단없이 울려퍼지게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당초급선전일군들인 선동원들을 잘 준비시켜 그들이 농업근로자들을 모내기전투에로 산악같이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되고 불길이 되게 하고있다.

연산군당위원회에서도 군안의 선동원들이 포전마다에서 붉은기, 직관선전물, 포전방송기재들을 잘 활용하면서 포전정치사업을 맹렬하게 벌려 농업근로자들의 사기를 부쩍 높여주게 하고있다.

신계군당위원회에서는 군기동예술선동대원들을 통한 경제선동활동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벌려 미루벌이 들썩하게 하고있다.

당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대홍단군당위원회, 삼지연군당위원회, 백암군당위원회를 비롯한 량강도안의 당조직들에서도 농장벌들마다에서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북소리를 드세차게 울려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좋은 성과들이 이룩되게 하고있다.

사상공세의 포성은 열두삼천리벌에서도 세차게 울리고있다.

숙천, 문덕, 평원군당위원회를 비롯한 평안남도안의 당조직들에서는 농장벌들에 방송선전기재들을 기동적으로,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우리 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련속적인 사상공세를 벌려 농업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 투쟁의 불을 달아주고있다.

개천시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람전협동농장, 삼포협동농장을 비롯한 시안의 농장들에 달려나가 농업근로자들속에서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그들이 올해 모내기전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전당이 선전원, 선동원이 되고 모든 일군들이 다 정치사업을 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만포시당위원회, 개성시당위원회, 함주군당위원회를 비롯하여 각지 당조직들에서 진행하는 화선식정치사업들은 농업근로자들의 열의를 최대로 앙양시키며 농장벌들마다에서 혁신의 불길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게 하고있다.

온 나라 농장벌들마다에서 울려퍼지는 집중적인 사상공세의 포성은 모든 농업근로자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며 당면한 모내기전투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지펴주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채인철

매일 높은 생산실적 기록

화학공업성 소금공업관리국에서

화학공업성 소금공업관리국아래 제염소들에서 전례없는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타오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말로써 대답할것이 아니라 자기 한몸을 내대고 실천으로 대답하는것이 애국자의 자세입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월 관리국앞에 맡겨진 소금생산에서 3배이상의 실적이 기록되였으며 4월 인민경제계획도 1.3배이상 넘쳐 수행되였다. 5월에 들어와서도 성과가 계속 확대되고있는데 19일현재 관리국적인 소금총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8배이상으로 늘어났다.

이것은 오늘의 생산돌격전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라는 비상한 자각을 안고 불가능을 모르는 과감한 실천력을 발휘하며 내달리고있는 화학공업성 소금공업관리국 일군들과 이곳 관리국아래 제염소들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헌신적투쟁기풍이 안아온 결실이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관리국의 일군들은 새해 정초부터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책임일군들부터가 관리국아래 제염소들에 자주 나가 생산자대중과 무릎을 마주하고 걸린 고리들을 제때에 풀기 위한 혁신적인 대책들을 세워나갔다. 그 과정에 긴장한 전력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도를 찾아쥐였으며 모든 제염소들에서 그것을 즉시에 실천하도록 확고한 물질적담보를 마련해놓았다.

광량만제염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혁신의 앞장에서 기세좋게 전진하고있다. 이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필요한 자재를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제품의 질제고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생산공정간 맞물림을 과학적으로 짜고들어 지난 3월에는 불리한 계절조건에서도 맡겨진 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였다. 첫달전투에서 거둔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계속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린 제염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4월에도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였으며 5월에도 과감한 생산돌격전을 벌리고있다.

남양제염소, 귀성제염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증산의 예비를 과학기술증시에서 찾고 같은 조건에서 더 많은 소금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이들이 생산한 소금량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볼때 각각 1.5배, 1.4배에 달한다.

운하, 은정, 연백, 금성, 남포제염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전례없는 생산적앙양을 이룩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충성

상반년 배무이와 배수리계획 완수

신의주선박공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신의주선박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배무이와 배수리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승리에 자만하지 않고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질입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면서 년초부터 힘찬 전투를 벌려 20여척의 배를 수리하고 3척의 배를 무어 상반년계획을 훨씬 앞당겨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일군들은 자재보장을 앞세우면서 배무이와 배수리전투를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로동자, 기술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전투현장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걸린 문제들도 제때에 풀어주었다.

공장의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앞선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상반년 배무이와 배수리계획을 끝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혁신의 불길은 배무이를 맡은 선체직장과 기계가공직장에서 세차게 타올랐다.

직장장 조국철동무를 비롯한 선체직장의 로동자들은 현대적인 배를 무어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할 비상한 각오를 안고 매일 배무이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는 집단적혁신을 일으켰다. 기계가공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배무이와 배수리에 필요한 설비제작을 적극 다그쳐 상반년계획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마감공정을 맡은 완성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높은 책임감을 안고 선체도장을 비롯하여 공정별계획을 매일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며 대중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었으며 후방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배무이와 배수리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올 일념으로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함흥모방직공장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공화국을 받드는 길에 참다운 애국충정이 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초대의장이였던 한덕수동지의 한생을 더듬어

우리 조국은 애국자가 많은 나라이다.

한세기전의 식민지약소국이 존엄높은 백두산대국으로 오늘의 영광을 맞이한것은 선군조국에서 사는 우리 인민들뿐아닌 해외에 있는 조국의 장한 아들딸들의 헌신을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육친적사랑과 각별한 믿음속에 총련이 결성기념일을 맞게 되는 지금 우리는 주체적인 해외교포조직의 결성에 크게 기여하고 그 강화발전에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뚜렷한 자욱을 남긴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 중앙상임위원회 초대의장이였던 한덕수동지의 생애를 돌이켜보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한덕수의장은 어버이수령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총련을 결성하고 재일동포들을 묶어세워 조국의 통일과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사업에 한생을 바친 혁명의 원로, 로혁명가, 참된 애국충신이였습니다.》

자본주의이역땅에서 오로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어 재일조선인들의 운명과 생활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도록 이끈 애국충신인 한덕수동지의 한생은 영광찬란한 우리 조국의 력사속에 힘찬 고동을 계속하고있다.

주체확립은 해외교포운동의 제일생명

준엄한 전화의 불길속에 조국의 산이 타고 강이 끓던 1952년 어느날 도꾜도 이따바시에 자리잡은 목조건물의 한 방에서 밤가는줄 모르고 펜을 달리는 사람이 있었다. 한덕수동지였다.

전쟁의 운명을 한몸에 걸머지시고 위대한 전승을 마련하시느라 긴장한 나날을 보내고계실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의 보고가 아니라 재일조선인운동의 운명구원을 바라는 청을 올리게 된 그였다.

닥쳐든 엄혹한 현실은 그의 가슴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게 하였다.

강철의 령장을 눈앞에 그리며 정중히 문안인사를 드리고 편지를 올리게 된 사연을 적어가는 한덕수동지는 망울을 터친 재일조선인운동앞에 불어친 사나운 비바람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해방의 환희속에 재일동포들의 창의에 의하여 재일본조선인련맹(조련)이 고고성을 터뜨린 그때부터 미일반동들은 탄압의 칼을 휘둘렀으며 조선전쟁발발을 앞두고서는 조련을 강제해산하는 야수적폭거를 감행하였다. 해방직후 간또지방조선인회를 책임지고 조련결성에 발벗고나서던 나날과 어버이수령님의 력사적서한 《재일 100만동포들에게》를 감격속에 받아안고 용기백배하여 조련의 장단 성원으로 동포들의 권리쟁취를 위해 자개바람이 일도록 뛰여다니던 소중한 추억이 간직되여있는 동포조직이였다.

멸시와 천대를 박차고 닻을 올린 애국운동앞에 덮쳐드는 시련의 파도는 그뿐이 아니였다.

그가 무엇보다 가슴아파 위대한 수령님께 글월을 올리게 된것은 재일조선인운동내부에 끼여든 사대주의자들의 준동으로 엄혹한 사태가 빚어졌기때문이였다. 재일조선인운동의 핵심성원들이 탄압을 피해 지하에 들어간것을 기화로 머리를 쳐든 이자들은 제주도에 공화국기가 휘날린다고 해도 재일동포들의 처지는 달라질것이 없다고 줴치면서 조직강령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호》조항을 빼던지고 종주국혁명론을 부르짖었다. 하여 초보적인 생존권도 가지지 못한 동포들이 《일본혁명 만세!》의 구호밑에 무모한 투쟁에 나섰다가 더운 피를 쏟았고 놈들은 《폭력방지》를 떠벌이며 조선사람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였다. 동포들의 피바다우에서 난파선마냥 표류하는 재일조선인운동을 구원할 방도는 과연 무엇인가.

편지를 한자한자 써나갈수록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떼무리를 상대로 판가리싸움을 하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자기마저 매달리지 않을수 없다는 피로움에 가슴이 저려왔다. 하지만 다른 방도는 없었다.

재일조선인운동을 살리자면 민족의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께 있는 그대로 실태를 보고올리고 가르치심을 받아야 하였다. 이러한 품성은 한생을 해외교포조직을 책임지고 수령님의 뜻대로 해외동포들의 자주적권리를 보장하고 공화국을 수호하여 투쟁해온 한덕수동지의 성격에서 핵을 이루고있었다.

펜을 달리는 그의 심중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밀물처럼 차올랐다.

한덕수동지가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 뵈온것은 주체37(1948)년 12월이였다. 새 조국건설의 초행길을 헤쳐가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분초를 쪼개가며 사업하시는 속에서도 한덕수동지를 비롯한 재일조선인경축단 성원들을 조국에로 불러주시였던것이다. 한덕수동지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들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헤아려주시며 남의 나라에서 당하는 망국노의 설음이 얼마나 가슴에 사무치는가 하는것을 자신께서도 직접 체험해보아 잘 알고있다고 못내 가슴아픈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친어버이사랑에 한덕수동지는 해묵은 설음이 가셔지는듯싶었다.

1907년 2월 경상북도 경산군의 농민가정에서 태여난 한덕수동지가 20살나던 해에 한가닥 희망을 품고 현해탄을 건너갔지만 따라다니는것은 망국노의 비참한 신세였다. 민족적멸시와 학대를 더는 참을수 없어 단나차굴공사장의 로동자들과 함께 항거해나섰던 그가 《선인도 사람인가.》라고 부르짖는 야수들에게 만신창이 되도록 두들겨맞기를 그 몇번… 육신을 부수는 고통보다 지켜줄 품이 없는 망국노의 한에 사나이의 비분을 뿌리던 그였다.

항일의 불길을 헤치시며 조국을 찾아주시고 오늘은 자기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시여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해외공민의 긍지를 안겨주시는 김일성장군님은 정녕 민족의 어버이이시였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덕수동지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장래를 부탁한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한덕수동지는 위인의 뜻을 심장에 새기며 보답의 맹세를 가다듬었다.

그러나 야만의 무리속에서 애국을 하고 민족의 얼을 지킨다는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였던가. 위대한 수령님께 올리는 편지와 함께 련락원을 보내는 한덕수동지의 심중은 무거웠다.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그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련락원을 만나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복잡한 사태의 본질을 순간에 꿰뚫어보시고 근엄하신 어조로 조선사람들이 무엇때문에 일본혁명을 위해 피흘리는가, 재일조선인운동을 조선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며 재일조선인들의 민족적권리를 지키고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족적애국운동으로 전환시키는것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고 재일조선인운동을 구원하는 길이며 재일동포들의 념원과 지향에 맞는 참된 애국의 길이라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재일조선인운동의 앞길을 찬란한 태양이 밝혀주고있었다.

한덕수동지를 비롯한 지도성원들은 물론 동포모두가 이젠 살았다고 환성을 올리며 운동재건의 투쟁에 분연히 일떠섰다. 고질적인 사대의 후과를 가시기 위해 천리 밤길도 가리지 않았고 침식을 잊어가며 집필활동도 벌렸으며 치렬한 론쟁과 진지한 설복으로 사람들의 머리를 틔워주기도 하였다. 로선전환방침을 구현한 새형의 조직을 내오기 위한 준비사업이 추진되였다.

드디여 주체44(1955)년 5월 25일 도꾜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력사적인 총련결성대회가 열리였다. 람홍색공화국기를 긍지높이 가슴에 안으며 한덕수동지는 총련의 결성을 엄숙히 선포하였다. 그가 끓어오르는 격정을 담아 《김일성원수님 만세!》를 목청껏 부르자 대회장은 불도가니처럼 끓어번졌다. 그 만세소리는 주체를 확립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을 구원하신 위대한 은인을 우러러 드리는 고마움의 인사였고 한생 태양의 전사로 살며 싸우려는 억척같은 신념의 맹세였다.

이역의 하늘가에 피여난 우리 민족의 자랑

총련에는 시대와 력사가 준 긍지높은 칭호가 있다.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

민족적긍지로 가슴부풀게 하는 부름이다.

총련강화에 깃든 한덕수동지의 공적가운데서도 첫째가는 공적은 모범분회창조운동의 불길을 지펴올려 총련을 수령의 총련, 어머니조국의 총련으로 강화발전시킨것이다.

총련결성후 위대한 수령님의 뜻대로 총련사업을 해나가는데서 무엇보다 걸린것은 동포들의 사상의식상태가 따라서지 못하는것이였다.

총련중앙에서 귀국실현문제를 토의할 때였다. 하루빨리 귀국의 길을 열자고 저저마다 열변을 토하는 속에 일부 사람들은 생뚱같이 3반투쟁의 약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나섰다. 3반투쟁은 미국과 일본반동정부를 반대하고 일본의 재무장책동을 반대하는것이 재일조선인운동의 기본임무로 된다는 미명하에 동포들을 애국운동이 아니라 일본혁명의 희생물로 내맡기는 극히 무모하고 사대주의적인 사상경향의 발로였다. 궤변을 즉석에서 일축한 한덕수동지는 일군들에게 심각한 어조로 동포들을 공화국의 두리에 묶어세운다는것이 어떤 의미인가고 물었다. 대답없는 좌중을 둘러보던 한덕수동지는 벌떡 일어서며 《공화국이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이시오. 수령님의 뜻을 모르면 제정신을 잃게 되오.》라고 불같이 말하였다.

당시 조국에서는 천리마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이 창조되고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지펴주신 천리마운동의 봉화가 온 나라에 인간개조, 사상개조의 열풍을 안아와 길확실, 리신자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천리마의 고삐를 틀어쥔 시대의 기수로 되고있는 현실은 한덕수동지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한덕수동지는 지체없이 총련중앙과 지역별회의들을 열고 동포대중모두가 조국인민들을 본받아 천리마를 탄 기세로 투쟁하도록 할데 대한 전례없는 사상동원운동을 발기하였다. 총련중앙의 전적인 지지를 불러일으킨 그 제의는 동포사회의 애국적계몽과 통일단결, 총련의 미래를 위한 조직적진출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총성으로 되였다.

자신부터가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손에서 놓은적이 없고 반동들이 《평양방송미치광이》라고 중상할 정도로 수령님과 조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였다. 궂은날, 진길을 가림없이 각 분회들에 내려가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뼈에 새기고 사업하도록 이끌었고 동포들속에 들어가 수령님의 숭고한 덕망과 위대성, 항일투사들의 충정의 신념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주기도 하였다. 그의 뇌리에는 총련의 사업설계와 동포들의 운명에 대한 책임감만이 꽉 차있었다.

때문에 이 나날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다심한 정을 모르고 자랐다. 그는 누구나 소중히 여기는 한집안 가장의 책임은 언제나 뒤로 미루고 동포들을 위해, 수령과 조국을 위해 온넋과 생을 바친 총련의 가장이고 애국충신이였다.

한덕수동지의 불같은 노력속에 도꾜도 고호꾸분회를 비롯한 여러 분회에 《조국을 향하여 배우자!》라는 힘찬 글발이 나붙었고 어버이수령님의 력사적인 교시들과 혁명전통에 대한 학습바람이 일기 시작하였으며 그 기풍은 동포들이 사는 곳곳에 퍼져갔다. 한덕수동지는 곧 총련 제6차 전체대회를 소집하고 총련의 모든 분회가 떨쳐나설것을 호소하고 이끌어나갔다. 이것이 바로 총련의 발전력사에 뚜렷이 아로새겨지고 재일동포들의 애국애족운동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모범분회창조운동의 발단과정이였다.

총련조직의 강화를 위한 투쟁이 주체63(1974)년 2월 조국에서의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선포에 보조를 같이하여 총련 제10차 전체대회에서 총련의 김일성주의화위업의 개시에로 승화됨으로써 총련은 절세위인의 존함으로 빛나는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 그 어떤 풍파에도 드놀지 않는 강철의 애국대오로 장성강화될수 있었다.

총련 제10차 전체대회가 성과적으로 끝나고 총련김일성주의화를 위한 중대한 토의가 있은 날 한덕수동지는 일군들앞에서 느닷없이 노래를 불렀다.

오늘의 이 행복을 그 누가 주었나
로동당이 주었네 수령님이 주셨네
김일성원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
목숨도 바쳐가리 오직 한마음
…

현해탄너머 일본땅에서 한덕수동지가 즐겨부르던 노래 《오직 한마음》이 울리고있었다. 평양하늘을 우러러 온넋을 담아 1절부터 3절까지 몇번이고 부르고 또 부르는 그의 눈시울에 맺혀있는 뜨거운것을 보며 동포들은 깊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목숨도 바쳐갈 오직 한마음!

이 한마음은 그의 인생을 시와 노래로 충만되게 하였고 창조와 열정으로 끓게 하였다. 그가 지은 많은 노래들에는 풍만한 정서적울림속에 어머니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따라 존엄떨치는 총련조직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차넘치고있다.

일본땅의 여기저기 우리 동포 사는 곳에 꾸려진 자랑스러운 총련조직, 조국위해, 권리위해 싸워가는 슬기로운 일군들, 초중급학교는 물론 대학교도 세워놓고 민족문화와 혁명전통을 체계있게 가르치는 모습,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의 현실을 옳바르게 알려주는 신문, 통신기관을 꾸려놓고 사회주의조국을 따라배우며 공민답게 사는 자랑 …

교육원조비, 장학금의 많고많은 귀한 돈을 바다건너 조국에서 보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높고 큰 사랑에 대한 찬가의 선률에는 위대한 사랑의 손길을 심장으로 받아안을줄 알고 보답의 삶을 불태워가는 한덕수동지의 뜨거운 충정의 열도가 담겨있다.

한덕수동지가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의 창립과 주체사상화, 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실현과 같은 거창한 위업을 떠메고 력사에 남을 공적을 세운 밑바탕에는 자기 수령, 자기 조국을 끝까지 따르며 받들 애국충정이 놓여있었다.

인생말년에 한덕수동지는 가족에게 이렇다 할 재산을 남긴것은 없지만 자기는 부자라고 말하군 하였다. 그의 큰 재산이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이고 자기자신과 동포들의 심장에 간직된 충정, 애국애족의 신념이였다. 언제인가 메히꼬의 한 인사는 총련중앙 일군들을 만난 자리에서 《조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국땅에서 총련이 달성한 빛나는 성과들은 주체사상의 결실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한바 있다.

그렇다. 수령과 조국을 따르는 한덕수동지와 같은 충신들의 노력에 의해 주체의 넋, 애국의 넋이 동포들의 심장속에 뿌리내렸기에 총련은 말살의 역풍이 휘몰아치는 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해외교포운동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해올수 있었다.

삶의 시작도 끝도 한모습으로

한덕수동지의 한생이 비낀 수첩들을 보면 글줄과 페지의 여백에서 《행운》, 《행운아》라는 단어들을 자주 볼수 있다. 그는 우연을 믿는 사람이 아니였다. 하다면 무엇때문에 자기를 행운아라고 자부했는가. 그것은 절세의 위인들을 수령으로 모신 행운과 위대한 령도의 계승으로 재일조선인운동의 미래가 창창하다는 확신때문이였다.

추억도 쓰라린 7월 8일의 대국상은 한덕수동지에게 있어서 청천벽력이였다. 병상에 있는 자기를 찾아오시여 락심하지 말라고, 혁명을 위해 백살까지 살아야 한다고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그 음성이 아직도 들려오고있는데 7월 7일에 총련지부일군대회에 친히 보내주신 사랑넘친 축전이 마지막축전이라니 웬 말인가. 한덕수동지는 믿을래야 믿을수 없는 현실앞에 밀둥잘린 거목마냥 쓰러졌다.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비길데 없는 상실의 아픔을 안고계시였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령전에서 오열에 떠는 그의 두손을 꼭 잡으시고 한의장동지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의장동지에게 혁명을 위해 오래오래 사셔야 한다고 하시였는데 건강하여야 한다고 오히려 힘을 주시는것이 아닌가.

식음을 전폐하였던 한덕수동지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이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에 이끌려 재생의 길을 걷게 되였다.

그는 완강한 정력을 발휘하였다. 문필활동을 여생의 과업으로 여기고 《김정일장군님은 승리이십니다》, 《우리 조국은 천하제일의 위인국입니다》와 같은 좋은 글들을 련이어 써냈고 불편한 몸이지만 조선학교졸업식들에 참가하여 졸업생들에게 동무들이 믿음직하게 준비되여야 어버이수령님앞에 떳떳이 설수 있고 애국위업이 승리할수 있다고 절절히 이르군 하였다.

총련의 미래에 보내는 그의 축복은 아름다왔다.

한덕수동지는 사랑하는 증손녀의 이름을 청송이라고 지었다. 가족들이 녀자애에게 꽃같은 이름을 지어주었으면 하는 심정을 내비쳤지만 그의 견해는 드릴줄 몰랐다.

《꽃은 아무리 아름다와도 철을 따르기마련이지만 소나무는 여름에도 겨울에도 언제나 한모습이다.》

이 말속에 후대들도 위대한 장군님을 받들어 푸르른 소나무처럼 살기를 바라는 그의 다함없는 축복이 담겨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으로 부르는 시대를 성벽처럼 지키렵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 드린 이 헌시의 구절에는 충정으로 억센 삶을 장식하려는 전사의 순결한 결의가 비껴있었다.

주체89(2000)년에 들어와 한덕수동지의 생명은 경각에 이르고있었다. 조국에서 온 자식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가 왔다고, 장군님께서 강한 의지로 병을 이겨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였다고 거듭 아뢰이자 중태에 빠져있던 그에게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한덕수동지의 눈귀로 눈물이 흘러내리는것이였다.

기적적으로 눈을 뜬 한덕수동지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낮으나 엄한 어조로 말하였다.

《여긴 왜 왔느냐. 빨리 조국에 가서 장군님을 받들어 일을 해야지.》

그때를 돌이켜보며 맏딸 한음전동무는 말하였다.

《생사기로에서 헤매이다가도 위대한 장군님 소식만 들으면 의식을 차리고 얼굴에 생기가 돌군 하였습니다. 장군님 소식은 아버지에게 생의 활력소였습니다. 정말 우리로서도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병상에서도 총련일군들과 함께 오랜 시간에 걸쳐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대로 총련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도를 토의하였고 누구에게라없이 《김정일장군님은 오늘의 김일성대원수님이시다. 우리모두가 장군님 두리에 굳게 뭉쳐나가야 한다.》라고 곱씹어 당부하군 하였다.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높이 받드는 신념의 자세를 추호도 흐트리지 않은 한덕수동지, 그는 정녕 투쟁의 시작도 끝도 한모습으로 빛내인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참된 혁명전사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세차례나 수여하도록 해주시고 2중로력영웅으로 내세워주시였으며 원사, 교수, 박사의 명예칭호도 안겨주도록 해주시였다. 평양의 한복판에 있는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도 애국충신의 한생을 영광으로 빛내여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을 뜨겁게 전하고있다.

생의 마지막순간에 한덕수동지가 동포들과 후대들에게 남긴 부탁은 무엇이였던가.

주체90(2001)년 2월 한덕수동지는 흐려지는 의식속에서 무슨 말인지 안타깝게 뇌이였다. 사람들은 그의 손을 꼭 잡고 귀를 강구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존경합니다. 하늘보다 더…존경…함…니…다.》

한덕수동지는 절세의 위인에 대한 매혹을 고백하는것으로 범상치 않은 삶을 마무리지었다. 그는 죽어서도 백두산위인들을 따르고있는것이다.

수난의 세월 그 누구보다도 불우한 처지에서 생을 시작한 그였지만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그를 지켜주고 이끌어주시였기에 험로역경을 헤쳐온 그의 한생은 보람찼고 긍지스러웠으며 어머니조국은 이 훌륭한 아들을 자기의 값높은 력사속에 품어안았다.

* *

애국의 1세들에 의해 개척되고 발전하여온 재일조선인운동은 오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있다. 시련과 난관은 의연 엄혹하지만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탁월한 정치가이시고 무적의 령장이시며 자애로운 인덕의 체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여 신심과 활력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의 애국유산인 총련을 귀중히 여기고 백방으로 보호할것이며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존엄높은 삶과 밝은 미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할것이라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의지를 밝히시였다. 그것은 총련애국위업의 보다 양양한 미래, 대전성기를 담보하고있다.

총련은 재일동포들의 귀중한 삶의 요람이고 잃고서는 못살 보금자리이다. 죽으면 죽었지 꺾을수 없는것이 애국의 넋이고 다른것은 다 버려도 피로써 지켜야 할것이 총련이다. 시련은 일시적이며 승리는 재일동포들의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애국위업의 탁월한 령도자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주체의 한길로 꿋꿋이 나아가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미래는 끝없이 휘황찬란하다.

본사기자 은정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과 위문전문을 보내였다

아스마라

에리트레아국가 대통령

이싸야스 아페워르키각하

나는 에리트레아독립 23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친선협조관계가 변함없이 강화발전되리라고 믿으면서 나라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3(2014)년 5월 24일 평 양

아부쟈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대통령
무력총사령관

굳락크 에벨레 죠나탄각하

나는 최근 귀국의 플래터우주소재지 죠스에서 폭탄폭발사건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입었다는 불행한 소식에 접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귀국정부와 인민 그리고 피해자유가족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표시합니다.

나는 귀국정부와 인민이 피해의 후과를 가시고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3(2014)년 5월 24일 평 양

도서를 통한 위대성선전

남포시의 여러 출판물보급소들에서 도서를 통한 위대성선전활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국장 백순세, 과장 엄문학동무를 비롯한 시출판물관리국의 일군들은 각 구역, 군들에서의 출판물배포와 그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드는것과 함께 도서들을 통한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선전을 잘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와우도구역출판물보급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진행하는 예술선동형식을 배합한 위대성선전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큰 실효를 나타내고있다.

이들은 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데 기초하여 생동하고 호소성이 강한 대본을 만들어가지고 대고조전투로 들끓는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선전활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얼마전 와우도구역 대대남새전문협동농장의 포전에서 진행한 도서선전은 한평생 험한 포전길을 걸으시며 우리 농민들을 더 잘살게 해주시려고 그처럼 마음써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덕망을 감동깊게 펼쳐보여 농장원들을 대원수님들의 유훈관철에로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항구구역, 대안구역, 룡강군의 출판물보급소들에서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을 더 깊이 심어주기 위한 도서선전활동을 힘있게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데 이바지하고있다.

특파기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을 명작폭포로 더욱 빛내여갈 결의에 넘쳐있다.
—함경남도예술단에서— 본사기자 찍음

가극의 한 장면을 두시고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난 1970년대에 우리의 문학예술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습니다.》

주체61(1972)년 11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창조사업을 지도하시기 위해 또다시 현지로 나오시였다.

무대에 가극의 꿈장면이 펼쳐졌다. 그 꿈장면은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를 받들고 창작가, 예술인들이 다듬고 또 다듬어 내놓은것이였다. 꿈장면형상을 위해 남달리 애쓴 무대미술가들은 그이를 모시고 가극을 보며 여간 마음을 조이지 않았다.

무대공간을 채우며 돌아가는 오색령롱한 뭇별들, 그 뭇별들속에서 서서히 나타나는 정든 고향집, 삼형제가 뜨락에 함께 심은 한그루의 꽃나무, 주인공이 오빠와 동생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감격과 기쁨을 말해주듯 펼쳐지는 황홀한 절경, 눈을 뜬 순희를 축복해주는듯 온 세상이 갑자기 밝아지며 갖가지 꽃들과 보석들이 빛을 뿌리는 가운데 폭포가 쏟아져내리는 장쾌한 화폭, 아름다운 조형미의 절정을 이룬 그 장면은 주인공이 그처럼 절절히 바라마지 않는 행복한 생활에 대한 뜻깊은 상징적형상이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요란스러운 폭음과 함께 바위가 내려앉고 검은구름이 몰려오고 광풍이 몰아쳐 그 아름다운 황홀경을 짓밟아버린다. 놀란 주인공이 신비로운 꿈세계로부터 엄혹한 현실로 돌아온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꿈장면을 보시고나서 꿈장면의 무대미술이 아주 좋다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순간 창조성원들의 가슴마다에 성공의 희열이 밀물처럼 꽉 차올랐다. 창조성원들은 그날밤 마음을 푹 놓고 단잠에 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밤도 우리 장군님께서 지새우고계신줄은 미처 알지 못하였다.

한밤을 지새우시며 가극의 성과적완성을 위해 정력을 기울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꿈장면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였다.

꿈장면에서 무용수들의 춤이 끝난 다음에 바위와 같은 그물장치물이 내려오는데 다른것으로 바꾸는것이 좋겠다. 잘못하면 그 장면이 혁명가극 《피바다》의 광산장면과 류사한 인상을 줄수 있다. …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은 일군들과 무대미술가들의 격정은 참으로 컸다.

(우리가 성공의 기쁨을 안고 단잠에 든 시각에도 그이께서는 하나의 꿈장면을 두고 밤을 지새우시였구나!…)

우리 장군님의 지칠줄 모르는 사색과 불같은 열정, 끝없는 헌신속에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 나오는 꿈장면은 무대미술의 높은 경지에 오른 장면의 하나로 완성될수 있었다.

박성철

우리 당의 사상중시의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5.25교시기념일에 즈음하여

당의 유일사상교양의 위력을 떨치며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주체56(1967)년 5월 25일 당사상사업부문 일군들에게 당면한 당선전사업방향에 대한 력사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단결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는데서 전환적리정표를 마련한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5.25교시는 혁명의 년대기마다에서 그 거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떨쳐왔다. 사상의 위력으로 백전백승하여온 우리 당의 성스러운 력사와 전통은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한 만년재보로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무엇보다먼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는데 당사상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의 유일사상교양,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비롯한 모든 사상교양사업을 일군들과 당원들과 로동자들을 수령결사옹위를 핵으로 하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철저히 지향시키고있는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사업을 통해서도 우리는 당의 사상중시로선의 진리성과 정당성을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해나가는 중대한 시기에 들어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교양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일군들과 당원들, 로동자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가고있다.

두해전 어느날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로 임명된 리창길동무는 실태를 료해하는 과정에 련합기업소가 어버이수령님께서 무어주신 석탄공업부문의 첫 련합기업소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일군들과 당원들, 로동자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우자면 단위에 깃든 령도업적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종합체계화하여야 한다.

문제를 이렇게 세운 당책임일군은 불멸의 사적을 발굴, 고증하는 사업을 맡아 진행할것을 당적분공으로 받아안았다. 그는 령도사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기 위한 사업에 자신의 열정을 바쳐나갔다. 당위원회 비서 변창남동무를 비롯한 일군들도 성, 중앙기관과 해당 일군들을 찾아다니며 사적자료를 하나하나 고증해나갔다.

하여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가 조직된 첫해인 주체66(1977)년에 그 전해에 비하여 1.5배의 석탄을 더 생산하게 되였다는 귀중한 자료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였다.

당위원회는 령도사적을 고증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를 통한 위대성교양에 큰 힘을 넣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터전을 잡아주신 기업소청사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도 일군들을 발동하여 와닥닥 끝내였다.

당위원회는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을 비롯한 교양거점을 더 잘 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일군들과 당원들, 로동자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었다.

이 사업을 본보기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제남탄광에서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된 후 남양탄광을 비롯하여 기업소의 거의 모든 탄광들에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이 더 잘 꾸려지고 문화회관들이 훌륭하게 개건되였다.

당위원회는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첫째가는 사업으로 여기고 이 사업에 모든것을 지향시켜나갔다.

서창청년탄광과 덕성탄광에 절세의 위인들의 태양상을 모자이크벽화로 짧은 기간에 정중히 모신 사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있다.

일군들과 당원들, 로동자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은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가 있은 후 더욱 심화되였다.

지난 3월 당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기업소안의 당초급선전일군들이 어느 한 지구에 있는 구호문헌에 대한 참관사업을 하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불굴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워 경애하는 원수님을 석탄증산으로 결사옹위하는데서 당초급선전일군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당원들과 로동자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은 선동원들이 진행하고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에 대한 발표모임과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해설모임을 통해서도 활발하게 벌어지고있다.

혁명가의 사상과 신념은 실천투쟁속에서 검증된다.

당위원회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받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석탄증산으로 결사옹위해나갈 일군들과 당원들, 로동자들의 신념과 의지가 석탄증산투쟁에서 높이 발휘되도록 이끌어나갔다.

지난 3월 서창청년탄광과 월봉탄광들에 동발나무가 미처 보장되지 않아 석탄생산실적이 떨어지고있을 때였다.

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동발나무생산전투를 조직하여 부족되는 동발나무를 자체로 해결하라고 탄광들에 과업을 주는 식으로 일하지 않았다.

직접 동발나무생산전투가 벌어지는 산판에 올라가 로동자들과 일도 같이하면서 정치사업,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켰다.

이에 고무된 로동자들은 작업량적으로 볼 때 한달동안 생산해야 할 동발나무를 일주일동안에 생산하여 갱막장들에 보내주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하여 기업소안의 모든 탄광들에서 1.4분기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할수 있게 하였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사업은 당의 유일사상교양을 실천과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일군들과 당원들, 로동자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준비시켜야 한다는것을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붉은 성새로 더욱 굳건히 다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손영희

백승의 보검—주체의 사상론

◇ 5월 23일현재 전국적인 모내기실적 50%계선 돌파, 하루평균 모내기실적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150%!

전례없는 혁신의 비결은 무엇인가.

일군들이 대중속에 들어가 사상의 포문을 열고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킨데 있다.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에 이어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를 마련해주시고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전당의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들끓는 농장벌에 전투지휘부를 정하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모내기전투장들을 들었다놓고있다. 도, 시, 군당위원회 일군들은 항일유격대식배낭을 메고 농업근로자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애국열의를 불러일으키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올해 모내기전투에서 이룩되고있는 혁신적성과는 우리 당의 사상중시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 사상을 틀어쥐면 백전백승한다는것은 우리 혁명의 력사가 보여주는 철의 진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에 의하여 혁명의 명맥이 지켜지고 사상의 힘으로 혁명이 전진합니다.》

사상중시, 이것은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의 전력사적로정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근본원칙이며 백승의 비결이다.

승승장구하던 조선혁명이 엄중한 도전에 부닥쳤던 1930년대 중엽,

적들이 조작한 혜산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을 검증하였다. 권영벽, 리제순, 마동희동지를 비롯한 목숨바쳐 신념을 지킨 사상의 강자들이 배출되였는가 하면 주력부대의 참모장까지 하면서 혁명을 곧잘 부르짖던 림수산, 사단청년과장자리까지 차지했던 장증렬 등은 투항변절하여 사상과 신념이 투철하지 못한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드러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정학습조직, 대중정치사업의 강화 등 사상의 위력으로 조성된 난국을 헤쳐나가시였다.

후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를 회고하시면서 사람이 사상단련을 잘하지 않으면 역경에 부닥쳤을 때 곤난앞에서 인차 굴복하게 된다고, 이런 의미에서 자신께서는 사상제일론을 주장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와 맞서싸운 피어린 항일전쟁의 승리도, 창건된지 몇해 안된 청소한 우리 공화국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을 타승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도, 재더미만 남았던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운 력사의 기적도 다 사상의 위력으로 안아온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다.

조선혁명이 자기 기발에 승리만을 아로새길수 있게 한 가장 위력한 보검은 바로 사상이다.

◇ 주체의 사상론, 이 위력한 무기를 더 높이 추켜들고 사상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온 나라가 혁명적대고조로 부글부글 끓게 하여야 한다.

온 사회를 로동당의 붉은 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상교양사업도 진공적으로 벌리고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도 화선식으로 벌리며 온갖 잡사상, 잡귀신들을 쓸어버리는 투쟁도 전격적으로 벌려야 한다.

사상전선이 들끓는것만큼 대중의 정신력이 폭발하며 천만군민이 일떠선것만큼 혁명이 전진한다.

각급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사상의 무기를 메고 대중속에 들어가 선전선동사업을 공세적으로 더욱 힘있게 벌려 사상으로 승리하고 전진해온 우리 혁명의 력사와 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

사상교양의 형식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보통강구역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사업에서

당조직들이 당의 유일사상교양, 혁명교양, 계급교양, 애국주의교양을 비롯한 사상교양사업에서 실효를 거두자면 방법론을 옳게 찾아쥐는것이 중요하다.

보통강구역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이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방법론을 옳게 세우는것은 모든 사업을 실속있게 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됩니다.》

구역당위원회에서는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진행하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에 대한 문답식학습진행과정이 그 한 실례로 된다.

구역당위원회에서는 우선 일군들로 문답식학습경연을 조직하였다.

문답식학습경연을 통해 자신들을 철저히 준비하게 된 구역당위원회일군들은 담당한 단위들에 내려가 목마른 사람에게 어디 가면 물을 마실수 있다고 알려주는것처럼 사람들이 알고싶어하는것, 듣고싶어하는것을 귀에 쏙쏙 들어가게 해설선전하였다. 그러면서 당세포별, 작업반별, 초급단체별문답식학습경연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가도록 이끌었다.

구역당위원회는 구역적인 문답식학습경연이 참신하게 진행되도록 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었다.

교육부문은 교육부문대로, 공장부문은 공장부문대로, 봉사부문은 봉사부문대로 경연을 진행하였으며 초급선전일군들은 초급선전일군들로 진행하도록 조직사업을 하였다. 지난 시기의 굳어진 낡은 틀에서 벗어나 새맛이 나고 실효성있게 진행되도록 하였다.

경연에서 우수한 단위는 구역일군들의 모임에서 높이 평가해주고 뒤떨어진 단위는 부류별로 갈라 경연을 다시 조직하였다.

다음으로 구역당위원회에서는 사상교양사업을 실천과 결부하여 진행하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교양사업의 실효는 실천에서 나타난다.

구역당위원회는 교양사업을 실천투쟁과 결부하여 진행하는데서 좋은 경험을 창조하였다. 그것이 바로 구역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로 조직한 당일군경제선동대활동이다.

구역당위원회에서는 당일군경제선동대활동에서 내용과 함께 형식을 중시하도록 하였다. 선전선동부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들어가 선동활동을 기백있게 진행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배낭에는 접이식직관판과 기발을 비롯한 선동기재들이 준비되여있다. 이 기재를 리용하여 어떤 실효를 거두었는가 하는것은 보통강피복공장의 로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도 잘 알수 있다.

《작업공간이 좁아 현장에서는 공연을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경제선동대원들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선전선동활동을 벌렸습니다. 요긴한 대목마다 직관판들을 펼치면 그것이 모두 합쳐져 옹근 하나의 구호가 되였고 또 다른 대목에 가서 펼치면 표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그 선동기재 하나하나에 일군들의 사색과 열정이 뜨겁게 깃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선동대원들의 공연에서 힘을 얻고 우리는 그날계획을 150%로 넘쳐 수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역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이 사상사업을 실천과 결부하여 실효성있게 진행한 하나의 실례에 불과하다.

백번이면 백번 다 새롭게 진행하군 하는 그들의 선동활동은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단위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안아오고있다.

참신한 형식과 방법, 바로 그것이 사상교양사업의 실효를 담보하는 중요한 고리의 하나라는것을 구역당위원회 선전선동부의 사업은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최영길

정세의 요구에 맞게 계급교양에 큰 힘을

구성시계급교양관에서

구성시계급교양관의 일군들과 강사들이 예술선동형식으로 계급교양해설선전사업을 잘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계급의식을 더욱 높여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미일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을 그들속에서 제기된 반영을 알아보는 과정에 자신들의 사업이 너무 고정격식화되고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참관자들에게 해설강의를 잘해주는것으로 만족해하던 이곳 계급교양관의 일군들과 강사들은 강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찾아나갔다.

그들은 우선 구성땅에서 감행한 미제와 일제, 계급적원쑤들의 만행자료들을 더 많이 찾아내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려 강의내용을 부단히 풍부하게 하기로 하였다.

일군들과 강사들이 떨쳐나 이 사업에 큰 품을 넣었다.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곳 일군들과 강사들은 여기에 만족할수 없었다.

그들은 계급교양의 실효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을 탐구하고 활용해나갔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청강자들속에서 반영이 대단히 좋은 예술선동형식의 계급교양이다.

시당위원회일군들의 적극적인 지지방조밑에 이곳 계급교양관에서는 예술선동형식으로 계급교양해설선전활동을 벌려나갔다.

시계급교양관에서는 이 사업에서 계급교양강사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였다. 계급교양강사들은 리기동예술선동대들과 합심하여 선동극, 선동이야기 등 다양한 예술선동형식으로 계급교양을 진행할 준비를 잘 갖추는데 큰 힘을 넣었다.

시계급교양관에서는 시적인 경연도 조직하여 좋은 점을 모든 계급교양강사들이 따라배우도록 하였다.

시계급교양관에서는 이렇게 준비한 예술선동형식의 계급교양작품을 가지고 협동농장들과 공장, 기업소들을 순회하면서 계급교양해설선전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계급의식을 더욱 높여주었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가 있은 후 이곳 계급교양관의 일군들과 강사들은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에 대처하여 시안의 녀맹원들로 계급교양해설선전대를 뭇고 동, 인민반들은 물론 공장, 기업소, 학교들에 나가 계급교양사업을 강도높이 벌리도록 사업을 잘 짜고들고있다.

계급교양사업이 심화되는 속에 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높은 계급적각오를 가지고 미일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패당과 피의 결산을 할 복수심으로 심장을 끓이며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총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리종석

학습을 통하여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깊이 체득하고있다.
—평양베아링공장에서— 본사기자 림학락 찍음

다음주에 진행될 보천보홰불상체육경기대회 축구 1급 1차경기일정

다음주에 진행될 보천보홰불상체육경기대회 축구 1급 1차경기일정은 다음과 같다.

26일(남자) 4.25:압록강
홰불:기관차
평양:리명수
(녀자) 소백수:룡악산
압록강:월미도
27일(남자) 룡악산:월미도
선봉:관모봉
4.25:소백수
28일(남자) 기관차:경공업성
압록강:평양
홰불:리명수
(녀자) 4.25:평양
소백수:내고향
29일(남자) 선봉:룡악산
4.25:월미도
기관차:관모봉
(녀자) 압록강:리명수
룡악산:월미도
30일(남자) 소백수:평양
리명수:경공업성
압록강:홰불
31일(남자) 4.25:룡악산
선봉:기관차
평양:월미도
(녀자) 4.25:소백수
압록강:평양

뽈럭불가담운동 외무상회의에 참가하며 아프리카, 아랍나라들을 방문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출발

알제리의 알좌자이르에서 진행되는 뽈럭불가담운동 외무상회의에 참가하며 아프리카, 아랍나라들을 방문하기 위해 리수용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이 24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박명국 외무성 부상과 류홍재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따맘 쑬레이만 수리아아랍공화국 림시대리대사가 전송하였다.

까부 웨르드공화국 대통령에게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죠르쥬 까를로스 폰쎄까 까부웨르드(베르데갑)공화국 대통령에게 홍선표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15일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죠르쥬 까를로스 폰쎄까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따뜻한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또한 김영남동지에게 인사를 전달해줄것을 부탁하였다.

그는 앞으로도 두 나라사이의 관계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수리아와 로씨야에 가는 우리 나라 정부경제대표단 출발

수리아의 디마스끄에서 진행되는 조선수리아경제공동위원회 제9차회의와 로씨야의 울라지보스또크에서 진행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로씨야련방 정부사이의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6차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리룡남무역상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정부경제대표단이 24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오룡철 무역성 부상과 알렉싼드르 찌모닌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따맘 쑬레이만 수리아아랍공화국 림시대리대사가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과학농사는 알곡증산의 확고한 담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타격방향이라고 하시면서 당과 국가가 제시한 알곡생산과제를 기어이 수행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올해의 농사에서 장훈을 부르자면 과학농사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부침땅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근본열쇠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정보당 수확고를 최대로 높이는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학농사라고 할 때 그것은 모든 영농공정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진행하며 현대과학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여 기술적요구에 맞게 짓는 농사이다. 다시말하여 농사차비로부터 낟알털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영농공정을 과학기술적요구대로 진행한다는것을 말한다.

한해농사는 논밭갈이, 씨뿌리기, 모기르기, 모내기, 김매기, 비료주기, 가을걷이 등 복잡한 공정들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영농공정들을 과학기술적요구대로 수행할 때에만 알곡생산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다.

과학농사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해당 지방의 지대적특성과 농작물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농사를 짓는것이다.

농업에서 지대적특성이란 농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 개별적지대들에서의 기후풍토조건을 말한다. 농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기후조건과 토양조건, 물조건, 생물학적조건 등이다.

기후조건은 빛조건, 기온의 보장상태, 강수량, 공기의 조성과 흐름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토양조건은 토양의 물리적 및 화학적성질, 토양미생물상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물조건은 관개수리시설의 상태, 물확보정형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생물학적조건은 농작물이 자라는 무리안에서 작물호상간의 영향, 농작물이 자라는 주변에서 해충을 비롯한 동식물이 미치는 영향과 미생물상태 등과 관계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농사를 잘 짓는 협동농장들의 경험을 놓고보면 그 농장들에서는 종자선택으로부터 지력을 높이는 문제, 4대요소비료인 질소, 린, 카리, 규소비료와 붕소, 망간, 마그네시움비료와 같은 미량원소비료를 자기 지방의 자연기후조건과 농작물의 생육에 맞게 치는 문제를 비롯하여 농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적으로 풀어나가고있다고 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지대적조건과 특성에 맞게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작물과 품종을 배치하고 그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것은 주체농법의 기본요구이며 높고 안전한 소출을 내기 위한 근본문제이다.

그러므로 농촌경리부문에서는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논벼, 강냉이, 감자, 콩농사와 두벌농사를 과학기술적요구대로 진행하여 정보당 수확고를 계통적으로 늘여야 한다.

과학농사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또한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농업생산에 널리 받아들이는것이다.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과 농업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최근년간 과학자, 기술자들은 농업생산에 이바지할수 있는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우리의 자원과 기술로 농업생산을 늘일수 있는 여러가지 영농기술과 영농방법, 성장조절제, 미생물비료, 첨가제들과 농약, 농기계, 토양개량제들이 연구완성되였다.

과학기술과 농업생산의 빠른 발전은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들을 누가 얼마나 빨리 생산에 받아들이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새로운 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도입에서는 농업생산의 특성에 맞게 새 기술도입대상별 도입규모를 바로 정하고 력량편성과 분담조직을 잘하여 해당 지대에서 충분한 시험을 거쳐 완전히 파악된 조건에서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질서를 세워야 한다.

농업부문에서는 종전의 비료나 농약에 비하여 생산원가와 정보당 사용량이 매우 적을뿐아니라 효과가 높으면서도 사용방법이 단순한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와 후민산염, 천연종합광물질비료, 식물성장활성제, 성장조절제, 나노살균제, 고농도린세균비료, 다원소액체비료, 극미량살초제 등을 널리 받아들여 알곡생산을 늘여나가야 한다.

과학농사를 짓는데서 중요한것은 농업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농사를 짓는 직접적담당자는 농업근로자들이다.

알곡생산과정은 수십가지의 복잡한 과학기술공정들을 거쳐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매개 공정을 담당수행하는 농업근로자들이 얼마나 풍부한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고있는가에 따라 한해농사의 성과가 좌우된다.

농업근로자들의 기술과 기능에 의해 성과가 결정되는 모든 영농공정들이 과학기술적요구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한해농사에서 20~30%의 수확고가 떨어진다.

그러므로 농업근로자들은 과학농사의 참된 주인이 되기 위하여 배우고 또 배워 실천에서 커다란 은이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들에서는 농장들에서 뜨락또르운전수들과 농업근로자들의 기능급수를 정기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며 기능공들을 내세워주어야 한다. 기술학습도 정상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농업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주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자기 부문의 과학기술지식을 배우며 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똑똑히 알고 그대로 일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특히 농장들에서 기술일군들의 역할을 최대로 높여나가야 한다.

기술일군들은 어느 포전이나 손금보듯이 환히 꿰들고 포전별에 따르는 작물과 품종배치, 재배형식, 목표수확고, 비료시비량 등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농업근로자들을 적극 이끌어나가야 한다.

또한 분조장을 비롯한 초급일군들이 과학기술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과학농사에 대한 관점을 바로가지고 모든 영농공정들을 적기에 질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인민경제대학 부교수
박성남

어버이사랑 끝없이 넘쳐나는 행복의 보금자리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어느덧 20여일이 흘렀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합숙생들이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훌륭히 일떠선 공장의 로동자합숙에 새살림을 편 때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둘도 없는 로동자들의 궁전, 로동자들의 호텔에서는 부르고 불러도 진함없는 고마움과 감격의 노래소리, 기쁨과 행복의 웃음소리가 내 조국의 푸른 하늘로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오늘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의 주인들은 누구라 할것없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들이 받아안은 사랑과 은정이 얼마나 크고 뜨거운것인가를 시간이 지날수록, 날과 날이 흐를수록 더욱 새삼스럽게 느끼고 체험하게 된다고.

실지로 그랬다.

합숙의 현관으로부터 시작하여 복도며 홀, 호실과 목욕탕, 상점과 식사실, 도서실과 미용실 등 합숙의 모든 곳, 모든 시설들이 처녀들의 생활에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너무도 정갈하고 섬세하며 편리하게 꾸려져있었다.

합숙준공식이 있은 날 궁궐같은 새 보금자리에 이사짐을 풀어놓았을 때 그들은 눈앞의 현실이 그저 꿈만 같이 여겨질뿐이였다. 그처럼 보는것, 듣는것 모두가 희한하고 황홀했기때문이였다.

로동자합숙준공식에 이어 합숙에 들어서던 날 그들모두는 놀라움과 경탄속에 합숙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다. 그리고 세상에 태여나 듣기도 처음인 로동자궁전, 로동자호텔이 과연 어떤것인지를 눈으로 직접 보며 평범한 로동자에 불과한 자기들이 어떤 영광과 행복속에 사는지 심장속에 똑똑히 새겨안았다.

그러나 얼마 안있어 합숙생처녀들은 행복의 새 보금자리에서 기다리는것이 희한함과 황홀감뿐이 아니라는것을 페부로 절감하게 되였다.

그들의 고향집은 결코 멀리에 있지 않았다. 자기들 바로 가까이, 일터와 나란히 있었다.

그들은 하루일을 마치고 합숙에 들어서면 다심한 어머니의 손길이 스며있는 정다운 고향집에 들어서는것만 같았다. 아니 고향집보다 더 따스한 정이 그들을 품어주었고 친부모의 사랑보다 더 다심한 은정이 합숙의 이르는 곳마다에 스며있었다.

호실의 따스한 이부자리에도, 세면장과 전실의 비품 하나에도 그리고 층마다 설치된 대형액정TV와 화면반주음악기재며 복도들에 놓여진 의자에 이르기까지…

합숙생들이 휴식과 오락, 체육을 마음껏 할수 있게 꾸려진 무릉도원—공원에서의 랑만넘친 생활은 또 얼마나 유쾌하고 즐거운것인가.

어머니의 사랑은 가식과 대가를 모른다.

그러나 이 세상 천만어머니들의 사랑과 정을 다 합쳐도 따르지 못할 가장 위대한 사랑, 시작은 있어도 그끝을 알수 없는 친어버이의 사랑이 바로 세상에 둘도 없는 로동자궁전, 로동자호텔로 솟아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의 곳곳마다에, 평범한 로동자에 불과한 수천명 방직공처녀들의 가슴마다에 봄날의 해빛마냥 따사롭게 비쳐들고있는것이다.

하기에 그대로는 지나보낼수 없는 20여일이였다. 감격과 환희의 노래, 기쁨과 행복의 웃음소리와 더불어 보답의 열의가 더욱 뜨거워진 맹세의 20여일이였고 실천의 20여일이였다.

지금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방직공처녀들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어머니당의 사랑과 은정에 더 많은 천을 짜는것으로 보답할 굳은 결의를 안고 모두가 비약하는 시대의 준마처녀로 살며 투쟁해나가고있다.

하거늘 로동자궁전, 로동자호텔의 주인들이 어찌 그 대오의 앞장에 서지 않을수 있으랴.

방적종합직장 정방공 리윤미, 방적준비직장 조방공 우숙영, 우미영자매를 비롯한 수많은 합숙생처녀들이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자랑을 안고 준마를 탄 기세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그들의 심장마다에 뜨겁게 고패치고있는것은 오직 하나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이고 절절한 그리움이며 원수님의 그 사랑, 그 은덕을 순간도 잊지 않고 로동계급의 세상, 인민의 참다운 나라인 사회주의 내 조국을 천만년 빛내여갈 불같은 지향이다.

그 지향, 그 마음을 안고 오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손길아래 태여난 로동자들의 사랑의 궁전이고 행복의 집이며 정다운 보금자리인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의 창가마다에서는 사회주의 내 조국에 대한 열렬한 찬가, 로동당만세소리가 저 푸른 하늘가로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글 본사기자 리남호
사진 본사기자 전성남

자식의 성장과 더불어 커가는 기쁨

혜산시 혜산동 58인민반 조박천동무의 가정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애국심은 주체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마음이며 참된 삶과 행복의 요람인 사회주의 내 조국을 세상에서 으뜸가는 나라로 빛내이려는 불타는 마음입니다.》

얼마전 우리는 축구반 남학생들이 도를 대표하여 전국적인 축구경기에 참가하게 된 혜산시 3중영예의 붉은기혜장소학교를 찾았다.

학교의 자랑거리를 꼽아가며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던 교장 김정순동무는 소년단위원장이며 축구반 주장인 조천령학생의 가정을 소개해달라고 하는것이였다.

이 학생으로 말하면 모든 과목성적이 우수할뿐아니라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특히 축구를 잘하여 사람들속에서 칭찬이 대단하다는것이였다. 축구반 지도교원 안기철동무도 훌륭한 자식의 뒤에는 훌륭한 부모가 있는 법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혜산시 혜산동에 있는 그의 집으로 안내하였다.

우리가 조천령학생의 집에 들어섰을 때 아버지 조박천동무가 축구공을 가지고 아들에게 무엇인가 열심히 설명해주고있었다.

《저녁에는 저렇게 마주앉아 그날 배운 축구기초기술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감독〉과 〈선수〉로 된답니다. 방안이 〈축구경기장〉으로 변한적도 몇번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어머니 박혜성동무가 들려주는 이야기였다. 알고보니 조박천동무는 도적으로 소문난 배구선수였다.

어느 한 도급기관의 일군으로 일하고있는 그는 얼마전에 진행된 도적인 배구경기에서도 자기 단위의 배구팀 주장으로 활약하면서 팀을 승리에로 이끌었다.

아버지는 배구팀 주장, 아들은 축구반 주장,

온 나라에 일어번지는 체육열풍이 이 가정에도 남다른 자랑을 꽃피우고있다고 생각하니 기쁘기 그지없었다.

우리는 자식의 성장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 조박천, 박혜성부부의 소중한 꿈도 알게 되였다. 그것은 아들을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드리는 훌륭한 축구선수로 키우고싶은 마음이였다.

하기에 이들은 일찌기 유치원시절의 아들에게 축구공을 안겨주었고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어도 조국의 영예를 떨친 체육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즐겨 들려주군 하였다.

부모의 적극적인 방조밑에 천령이는 유치원시절부터 아침달리기를 정상화하며 몸을 튼튼히 단련하였고 학교에 입학하여서는 학과학습에서도 축구훈련에서도 언제나 모범이였다.

아들애의 성장에서 이들부부가 큰 힘을 넣은것은 축구선수가 되기에 앞서 조국을 아는 소중한 마음을 먼저 간직하게 하는것이였다.

아버지, 어머니는 백두산밀영 고향집에 뜨거운 지성을 바쳐갈 때면 꼭꼭 천령이를 그 길에 내세우군 하였다.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장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의 여러 전투장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부모들과 함께 애국의 한마음을 바쳐온 나날속에 천령이의 마음의 키는 더욱 자랐다.

얼마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준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여 학생소년들의 축구경기도 보아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는 아버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텔레비죤화면에서 뵈옵던 그날 조천령학생은 더더욱 결심을 굳게 다지였다고 한다.

(학습과 조직생활도 잘하고 축구도 더 열심히 배워 아버지원수님께 기쁨드리리라!)

나어린 가슴속에 커가는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버지 조박천동무는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우리 부모의 정성이 아무리 크다 한들 아들애의 자그마한 재능의 싹을 활짝 꽃피워주는 당의 사랑에 어찌 비길수 있겠습니까. 고마운 당의 품속에서 몰라보게 성장하는 아들의 모습은 우리 가정의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이런 자랑과 기쁨이 모이고모여 조국의 미래가 더욱 아름답게 꽃피고 체육강국건설의 억센 기둥감들이 끊임없이 자라난다고 생각하니 이 가정의 숨결이 보석처럼 소중히 안겨왔다.

본사기자 전철호

학생소년들의 꿈과 희망 나래펴는 곳

개성학생소년궁전을 찾아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앞으로 학생소년궁전과 청소년회관들에서 예술소조뿐아니라 물리소조, 체육소조를 비롯한 여러가지 소조활동을 활발하게 벌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얼마전 우리는 분계연선도시 개성시에 자리잡고있는 개성학생소년궁전을 찾았다.

날아갈듯 한 조선식합각지붕을 얹고 그에 어울리는 벽면장식을 한 궁전의 정원에는 학생소년들과 함께 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우리와 만난 총장 리영남동무는 궁전의 여러 소조실들을 돌아보기에 앞서 개성시의 학생소년들이 재능의 나래를 활짝 펼치도록 해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한없는 사랑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이야기하였다.

궁전을 건설할데 대한 내각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시고 터전도 몸소 잡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체61(1972)년 9월 궁전을 찾아주시여 학생교육교양사업과 궁전관리운영에서 나서는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주신 이야기,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궁전에 수백점의 선물을 보내주신 이야기, 궁전의 소조원들이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공연에 여러차례 출연하여 은정깊은 사랑을 받아안은 이야기…

1만 2천여㎡의 건평에 수십개의 소조실, 750석의 관람석을 가진 극장, 체육관, 도서실 등이 갖추어져있는 궁전의 그 어디에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후대사랑이 어려있다는 생각에 가슴뜨거워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우리는 그의 안내를 받으며 궁전의 여러 방들을 돌아보았다.

최첨단돌파전의 선구자가 될 꿈을 지닌 학생소년들은 정보기술소조, 물리소조를 비롯한 여러 과학기술소조들에서 탐구의 나래를 펼치고있었고 세계적인 패권자가 될 포부를 지닌 학생소년들은 롱구, 배구, 탁구, 권투소조를 비롯한 체육소조들에서 기초기술들을 련마하고있었다.

지도교원 왕옥실동무의 지도밑에 민족성악소조원들은 우리 인민들이 사랑하는 민요의 고유한 창법을 익히기 위해 노력하고있었고 지도교원 김대성동무의 지도밑에 손풍금소조원들이 다양한 주법으로 능숙하게 악기를 다루고있었다.

우리는 이어 흥겨운 민족장단이 울리는 민족무용소조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거기서는 지도교원 홍명실동무가 꼬리잡이놀이를 하는 학생소년들의 유쾌하고 명랑한 생활모습을 동심적인 무용동작으로 방불하게 형상하기 위해 무용지도에 여념이 없었다.

우리는 민족무용소조실에서 그들이 준비하고있는 다른 작품의 무용련습모습도 볼수 있었다. 안무가 고영숙동무가 고심하여 창작한 그 작품은 당의 은정속에 문명한 생활을 누리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기쁨넘친 모습이 부러워 저하늘의 달도 서산으로 지지 않으려 하고 해도 빨리 뜨고있다는 학생소년들의 동심적인 생각을 우아한 무용률동으로 보여주는 작품이였다.

당의 은정속에 믿음직한 과외교양기지로 일떠선 소년궁전, 그때로부터 지난 수십년간 사상예술성이 높은 예술작품들을 수많이 창작하였으며 그중 수십편의 작품들이 전국적인 학생소년들의 예술축전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자랑을 가지고있는 궁전의 그 어느 소조실에 들려보아도 자기의 꿈과 희망을 활짝 꽃피워나가고있는 학생소년들의 미더운 모습을 볼수 있었다.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에 떠받들려 일떠선 이 훌륭한 과외교양기지에서 인민들을 기쁘게 하고 주체조선의 영예를 떨칠 미래의 주인공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것이라는 확신에 넘쳐 우리는 궁전을 나섰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백성근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이채로운 풍치

이름난 관광지—필리핀의 바기오

필리핀의 루쏜섬에는 바기오라는 도시가 있다. 이 도시는 사시장철 봄날과 같이 따뜻하며 경치도 아름답다.

록음이 우거진 산들에 안개가 자욱하여 아름다움을 돋구어주며 갖가지 식물들이 자라고 수많은 꽃들이 앞을 다투어 피여나는 속에 여러가지 건물들이 자리잡고있는 광경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더해준다.

《꽃도시》, 《소나무도시》 등으로 불리우고있는 바기오시는 필리핀과 동남아시아에서 이름난 피서지, 관광지로 되고있다.

필리핀에는 《바기오에 가보지 못한 사람은 필리핀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는 말도 있다고 한다.

특이한 자연풍경을 펼친 나미비아해안

나미비아는 아프리카대륙의 남서부 대서양연안에 있는 나라이다.

긴 해안선을 가지고있는 이 나라의 바다가풍경은 매우 독특하다. 이 나라에 가면 해안선의 한켠에 가없이 푸른 바다가 펼쳐져있고 다른 한켠에는 드넓은 나미브사막이 있는 기이한 풍경을 볼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드문 이러한 풍경은 나미비아의 해안에 온 한해동안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것과 관련된다.

나미브사막은 바다바람에 의하여 천태만상의 풍경을 이루고있다. 일부 지역의 모래구릉과 모래산은 사람들이 자연풍치를 즐기거나 몸을 단련하기에 좋은 곳이기도 하다.

나미비아해안에는 《물범의 왕국》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바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있는 물범자연보호구가 있다.

이곳에서는 수많은 물범들이 암초우에서 쉬임없이 꿈틀거리고 여기저기에 모여있거나 무리를 지어 바다에서 해염을 치는 광경도 볼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안헬폭포

남아메리카의 북쪽에 위치하고있는 베네수엘라에 펼쳐져있는 풍치가운데서 유명한것의 하나가 바로 안헬폭포이다.

이 나라의 남부 가이아나고원의 비탈면으로 흐르는 까로니강의 어느 한 지류에 있는 안헬폭포는 1 054m로서 세계적으로 제일 높다.

본사기자

효능높은 펩티드성건강식품 연구개발

효소에 의한 단백질분해산물인 펩티드는 사람의 건강증진과 병치료에 좋은 작용을 한다. 펩티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도 높고 그 리용과 관련한 연구사업도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최근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의 연구집단에서는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펩티드성건강식품인 칼시움펩티드와 종합아미노산꿀을 연구개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히 여기는 우리 나라에서 인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하는 사업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습니다.》

강좌장 박사, 부교수 김영조, 교원 리준성, 한성수동무를 비롯한 이곳 연구집단은 최근시기 활성이 높은 단백질분해효소생성균그루를 선발육종하고 흔한 원료로 효소를 대량적으로 생산하는데 성공하였다.

뿐만아니라 연구사업을 심화시키는 과정에 활성높은 단백질분해효소를 리용하여 펩티드성건강식품인 칼시움펩티드와 종합아미노산꿀을 개발하였다.

칼시움펩티드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강력한 칼시움흡수촉진제로서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좋은 작용을 한다.

사람이 칼시움을 충분히 흡수하여야 건강하고 오래 살수 있다는것은 잘 알려져있다. 그런데 보통상태에서 칼시움에 대한 인체의 흡수능력은 높지 못하다.

연구집단은 활성높은 단백질분해효소로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단백질을 분해하여 카제인린산펩티드를 얻어냈는데 이것은 인체내에서 칼시움흡수촉진작용을 한다.

카제인린산펩티드를 리용하여 만든 칼시움펩티드는 골송소증, 구루병, 관절염, 무균성뼈피사와 같은 뼈대사질병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어린이들의 키크기와 산전산후녀성들의 건강회복에 대단히 효과적일뿐아니라 부작용이 전혀 없다.

종합아미노산꿀은 활성높은 단백질분해효소로 동물성고단백질을 분해하여 얻은 종합아미노산과 펩티드 등을 꿀에 섞어 만든 종합적인 기능성영양강화식품이다.

펩티드가 많이 포함된 이 건강식품은 전신쇠약증환자들의 원기회복과 소화불량, 간염, 저혈압, 빈혈 등에 대한 치료 그리고 수술후 건강회복에 효과가 대단히 좋다.

펩티드성건강식품을 개발하는데 리용된 활성높은 단백질분해효소와 칼시움펩티드, 종합아미노산꿀의 생산방법은 특허로 등록되였다. 이곳 연구집단에서 개발한 펩티드성건강식품들은 사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본사기자

관심을 모으는 구름계산

현재 세계적으로 정보기술은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쉽게 얻고 효률적으로 리용하며 사람들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있다. 이러한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환경을 제공하는것이 바로 구름계산(Cloud computing)이다.

구름계산은 기업경영 등에 쓰이는 프로그람들을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계산 및 기억능력을 인터네트 등의 콤퓨터망으로부터 제공받을수 있게 하는 콤퓨터망봉사형식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인터네트에서의 계산이다.

인터네트에서의 계산이라고 할 때 그것은 탁상용콤퓨터가 인터네트상에서 웨브싸이트를 통하여 초대형콤퓨터가 하는 모든 일을 다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경제생활이 발전하면서 인터네트와 개인용콤퓨터의 급속한 보급으로 일어난 정보폭발로 하여 대량의 자료를 고속처리할수 있는 값비싼 정보처리장치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되였다. 이로부터 과학자들은 인터네트에 잠재되여있는 수십만~수백만대의 콤퓨터들의 여유능력을 모아 사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초대형콤퓨터능력에 이르기까지의 자료처리 및 보관능력을 구매 혹은 임대봉사형식으로 제공하는 구름계산기술을 개발하여 봉사하기 시작하였다.

구름계산은 탁상용콤퓨터에서의 계산과 류사하게 하드웨어, 조작체계, 응용프로그람의 3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지지만 이 요소들이 국부적으로 관리되는것이 아니라 인터네트에서 봉사의 형태로 운영된다.

구름계산은 인터네트에서 응용프로그람봉사, 프로그람개발환경의 제공, 필요한 조작체계봉사뿐아니라 조작체계의 설치, 갱신 지어는 상품구입 등 모든 일을 다할수 있다. 이때 모든 실제적인 처리와 계산은 인터네트에 분산되여있는 봉사기들과 그우에 설치되여있는 쏘프트웨어에 의해서 수행된다. 구름계산을 받아들이면 경영정보체계 구축에 드는 투자를 절약하고 경영원가도 낮출수 있다.

국가과학원 정보과학기술연구소 김윤남

버섯생산의 공업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버섯을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는것을 적극 일반화하여야 합니다.》

버섯생산의 공업화기술은 종균생산, 기질생산, 버섯기르기의 모든 공정들이 여러 분야의 현대과학기술과 결합되여 이루어지는 고도의 집약화기술이다.

1990년대를 전후로 하여 버섯생산기술은 계절재배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버섯생물학, 미생물학, 생태학, 기계공학, 계량 및 자동화공학 등 여러 분야의 전문기술이 결합된 현대생물공학기술로 비약하였다.

어느 버섯이나 생산공정(종균생산, 기질생산, 버섯기르기)에서 차이는 없지만 해당 품종의 생물학적 특성과 생산조건에 맞는 기술이 확립되고 그에 따라 공업화기술의 방식도 다르다.

지금까지 확립된 버섯의 공업적생산기술은 크게 멸균법과 미생물발효법으로 되여있다.

세계적으로 공업화가 제일먼저 표준화기술로 완성된것은 미생물발효법에 의한 벼짚버섯생산기술이다.

이 경우 공업화의 기본공정은 종균생산, 기질생산, 버섯기르기로 되여있는데 공정별로 생산을 전문화하면서 그에 대한 과학기술적 요구가 매우 높다.

설비투자가 많은 종균생산은 국가적규모에서, 가장 품이 많이 드는 기질생산은 지역적범위에서, 재배는 현대화된 전문공장과 함께 중소규모의 버섯공장들에 종균과 기질을 보장하여 생산을 안전하게 하는 분산재배형식으로 진행되고있다.

미생물발효법은 원료에 자연적으로 분포되여있는 고온성유용미생물을 선택적으로 발육시켜 버섯균이 흡수하기 힘든 원료성분들을 가공하는 기술이다.

종균생산의 최종작업은 무균접종이 아니라 기계장치에 의한 개방조건에서 진행한다.

미생물발효법을 적용할수 있는 버섯의 기본품종은 벼짚버섯, 비늘먹물버섯, 느타리버섯이다.

버섯생산공업화의 다른 한 방향은 흰곤봉버섯, 참나무버섯과 같은 버섯생산에 적용되는 멸균기질에 의한 재배기술이다.

주원료는 농림부산물과 쌀겨, 밀기울, 콩깨묵 등을 쓰며 기질의 멸균이후 최종작업은 엄격한 무균조작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배양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고 정밀하며 기질멸균에 드는 에네르기소비가 많다.

버섯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학기술적요구는 다음과 같다.

영양가치가 높고 수확성이 높은 버섯품종을 해결하여야 한다.

활성이 높은 종균의 생산기술을 표준화하고 질이 높은 기질생산기술이 확립되여야 한다.

버섯의 생육조건을 보장하며 생산을 집약화할수 있는 재배환경의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생산의 매 공정에 맞는 기계장치 및 조종체계를 해결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원료, 생태환경 및 생산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품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 소장 박사 리선희

독자의 편지

고마운 사람들

저의 집에는 고마운 사람들이 수많이 찾아오고있습니다.

그들속에는 모교인 보통강구역 보통강초급중학교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때없이 찾아와 혁명적인 도서들과 귀한 약재, 식료품을 안겨주며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고무해주는 그들의 진정에 목메여 눈물을 걷잡지 못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고마운 사람들은 이뿐이 아닙니다. 인민문화궁전 초급당비서 길경순동무는 학교시절부터 손풍금을 배워온 저의 취미를 헤아려 궁전의 리유경선생님에게서 지도를 받으며 음악적재능을 더 활짝 꽃피워가도록 떠밀어주었습니다.

생일이면 제일먼저 찾아와 축하의 꽃다발과 기념품을 안겨주는 어느 한 단위의 로동자 최영철동무, 평양철다리보공장 로동자 변철호동무 등 저를 친동생처럼 사랑해주고 따뜻이 보살펴주는 사람들을 꼽자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저는 소리높이 웨치고싶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대가정의 어버이로 모시고 사는 사회주의 내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말입니다.

보통강구역 신원동 1인민반 영예군인 문동혁

태양의 빛발따라 나아가는 총련의 앞길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59돐에 즈음하여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의 기치를 높이 추켜든 때로부터 59년, 평탄한 길이 아니라 류례없는 시련과 역경의 봉우리들을 끊임없이 넘고넘으며 불패의 대오 총련은 바람세찬 이역땅에 자랑찬 투쟁서사시를 빛나게 수놓아왔다. 애국충정의 모범인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조국과 인민의 커다란 긍지이고 영예이다. 뜻깊은 총련결성기념일을 맞으며 조국인민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주체적해외교포운동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애국의 길에 한생을 다 바친 총련의 로세대일군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며 선렬들의 넋을 이어 그 어떤 명예나 안락도 바람이 없이 자기 초소를 굳건히 지켜가고있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열렬한 동포애적인사를 보낸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허영민 라영국

주체의 길, 애국애족의 길을 꿋꿋이 걸어온 불패의 대오

재일조선인운동은 절세의 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자주와 선군의 성새, 불패의 보루인 우리 공화국의 강력한 보호와 지지성원밑에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의 영예를 높이 떨쳐오고있다.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60여성상의 자랑찬 로정에는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언제나 사회주의조국과 운명을 함께 하여온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애국충정의 자욱이 뚜렷이 아로새겨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조국과 인민은 애국애족의 선각자, 애국충정의 모범인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가지고있는것을 커다란 긍지와 자랑으로 여기고있습니다.》

총련은 주체의 기치, 애국애족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과 민족을 위한 성스러운 한길을 꿋꿋이 걸어온 신념과 충정의 대오이다. 총련을 이토록 애국의 신념으로 굳게 뭉치고 동포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주체형의 해외교포단체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직후 《재일 100만동포들에게》라는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시여 재일동포들에게 애국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으며 자기의 성격에 맞는 로선을 세우지 못한것으로 하여 시련을 겪고있던 재일조선인운동을 애국의 궤도우에 확고히 올려세워주시였다. 해외교포운동은 비록 이국땅에서 진행되지만 어디까지나 주체적립장에서 자기 나라 혁명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민족적애국운동으로 되여야 한다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로선전환방침에 따라 주체44(1955)년 5월 25일 총련이 결성되였다.

주체의 항로우에 애국의 닻을 올린 총련은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림없이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는 애국조직으로 강화발전되여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주체적해외교포운동사상을 계승하시여 총련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수호전을 승리에로 이끄시던 그 준엄한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서한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데 대하여》는 총련애국위업에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에 완벽한 해명을 준 백과전서적인 지침이다.

자신께서는 어려울 때마다 조국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총련동무들을 생각한다고 하시며 총련일군들을 한전호속의 동지로, 재일동포들을 한식솔로 믿어주고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할 영원한 사랑의 서사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조국과 더불어 총련도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절세위인들의 주체적해외교포운동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어 총련은 조국과 민족앞에 실로 커다란 업적을 이룩하였다.

총련은 머나먼 이역땅에서도 어머니조국을 참다운 삶의 요람으로, 희망의 등대로 우러르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륭성번영과 자주적통일을 위한 보람찬 위업수행에 귀중한 공헌을 하였다.

오늘 우리 공화국이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조선으로 위용떨치는데는 자기의 열과 정을 다하여 조국을 끝없이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받들어온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고귀한 애국지성과 숨은 노력도 깃들어있다.

태양의 력사는 영원하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뜻과 정을 그대로 이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재일동포들을 두터운 정을 안고 사는 하나의 혈육으로 각별히 사랑하고 믿어주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련지부일군대회와 공화국창건 65돐, 총련 제23차 전체대회에 즈음하여 보내주신 축전과 축하문들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총련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오늘 총련과 재일동포들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우리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주체의 해외교포운동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개척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유훈을 불멸의 기치로 추켜들고 재일조선인운동을 오직 주체의 길, 애국애족의 길, 강성번영의 길로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가야 한다.

각급 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지며 일군들과 동포들을 김정일애국주의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지부를 비롯한 기층조직들을 재일조선인운동의 지역적거점으로 잘 꾸리고 생기발랄하게 움직이게 하며 우리 말을 배우고 쓰기 위한 운동과 다채로운 문화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 재일동포사회가 언제나 화목하고 약동하며 민족적정서로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애국활동의 중심에 놓고 진행하며 애국운동의 주역인 새 세대 청년들, 동포상공인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애국위업의 대를 굳게 잇고 동포군중지반을 끊임없이 넓혀나가야 한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조국인민들의 전진에 발걸음을 맞추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앞당기는데 특색있게 이바지하며 일본인민들과의 우호친선을 두터이하여 조일관계개선과 총련의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체의 조국은 온 겨레의 운명과 미래를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위대한 품이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우리 인민의 귀중한 한식솔들이다. 우리 공화국은 주체의 애국유산인 총련을 귀중히 여기고 백방으로 보호할것이며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존엄높은 삶과 밝은 미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할것이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높이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앞길이 끝없이 창창하듯이 총련의 미래도 밝고 양양하다.

지금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전통이 굳건하고 계승이 위대한 총련의 자랑스러운 력사를 줄기차게 이어나가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새 전성기의 활로를 기어이 열어나갈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조국인민들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앞으로도 절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신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단체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훌륭히 수행하여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의 영예를 더욱 높이 떨쳐나가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

애국활동의 변함없는 출발점

재일조선인운동은 민족교육으로부터 시작되였다.

민족교육은 곧 재일조선인운동의 출발점이였다. 민족교육이라는 밑뿌리가 있었기에 총련이라는 거목이 솟아올랐다.

민족교육을 말살하기 위한 일본반동들의 끈질긴 책동은 결국 총련의 밑뿌리를 들어내려는 흉심의 발로이다. 그것은 날이 갈수록 더더욱 악랄해지고있다. 그 대표적실례가 바로 조선학교를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비렬한 차별책동이다.

이에 격분한 재일동포들은 선대들이 피로써 찾은 민족교육의 권리를 고수하고 총련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일본 각지에서는 일본당국의 차별행위의 부당성을 까밝히는 선전활동과 서명운동, 항의집회들이 련일 벌어지고있다.

《조선학교지원배제는 민족차별!》, 《조선학교차별을 용서안한다!》, 《투쟁으로 우리의 권리를 찾자!》등의 함성이 온 일본땅을 진감하고있다.

한편 민족교육의 직접적인 담당자들인 동포교육자들은 시대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학생들을 유능한 애국인재로 키우기 위한 교수교양사업과 학생인입사업, 준정규교육망을 튼튼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나가고있다.

악화되는 정세와 어려운 경제형편속에서도 민족교육에 대한 동포들의 사랑과 지성은 나날이 뜨거워만지고있다.

총련과 녀성동맹, 청상회 등 여러 동포단체들이 학생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너도나도 떨쳐나서고있다.

동포들은 우리 학교를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면서 어렵게 마련한 돈을 서슴없이 교육지원금으로 바치고있다.

그 뜨거운 성의에 의해 최근년간에만도 여러 지역에서 현대적인 새 교사들이 일떠섰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고 더더욱 뜨거워만지는 동포사회의 이런 지성에 떠받들려 민족교육의 토대는 날로 튼튼해지고있으며 애국의 대가 굳건히 이어지고있다.

동포들은 생각한다. 민족교육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애국활동의 출발점이라고.

시련과 역경은 신념의 시험대

총련의 력사는 엄혹한 시련과 고난의 나날의 련속이였다. 일본반동들은 총련애국운동을 초창기부터 말살하기 위해 갖은 비렬한 음모와 횡포한 폭압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가혹한 시련과 도전의 광풍은 총련이 헤쳐나가는 애국의 항로를 오늘도 끈질기게 막아나서고있다. 최근에만 하여도 일본반동들은 각종 모략극들을 조작하여 총련의 각급 기관들과 동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에 미쳐날뛰고있다. 겹쌓이는 시련과 역경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신념과 의지의 시험대나 같다. 일본반동들의 횡포무도한 탄압앞에서 조금이라도 주저한다면 재일동포들에게 차례질것이란 굴종과 치욕밖에 없다. 이것을 잘 알고있기에 재일동포들은 총련조직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일본반동들의 비렬한 반총련책동을 반대하여 완강히 싸워나가고있다. 총련조직이 있고 재일동포들이 사는 곳에서는 일본반동들의 광란적인 총련탄압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이 그칠새없이 벌어지고있다.

총련은 일본당국과 우익세력들이 총련에 대한 탄압폭거와 동포들에 대한 인권유린행위를 감행할 때마다 그 흉악한 기도를 내외에 널리 폭로하고 총련조직과 상공회, 동포들의 생활과 권리를 견결히 지켜내고있다. 또한 일본당국의 악랄한 반공화국, 반총련제재조치들을 반대하는 전조직적이며 동포군중적인 운동을 강력히 벌리고있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서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정치적탄압과 인권침해의 진상을 폭로하여 국제적인 규탄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게 하고있다.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해외공민이라는 자부심, 무적필승의 선군정치로 위용떨치는 강위력한 조국이 보호해주고있다는 만만한 배심이 그들의 투쟁의지를 북돋아주고있으며 시련의 광풍을 웃으며 맞받아나가게 하고있다.

지금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최후의 승리는 단결하여 싸우는 자기들에게 있다고 하면서 일본반동들의 천만부당한 정치탄압을 짓부시고 총련과 동포사회를 꿋꿋이 지켜나가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위대한 태양의 빛발아래 승리의 력사를 수놓아온 총련애국위업을 견결히 수호하려는 재일동포들의 신념과 의지는 날로 더욱 굳건해지고있다.

《우리는 조선사람》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민족동화정책과 동포사회분렬책동은 참으로 끈질기며 날로 더욱 악랄해지고있다. 그것을 짓부시고 동포사회를 굳건히 고수하기 위해 총련은 동포되찾기운동의 봉화를 높이 들었다.

동포되찾기운동은 애국위업의 빛나는 로정에서 이룩된 고귀한 전통과 경험에 기초하여 변화된 환경과 동포사회의 실정에 맞게 동포들의 민족권과 애국애족력량을 확대하기 위한 대중적운동이다. 지금 이 운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활기를 띠면서 각지에서 힘차게 조직전개되고있다. 총련일군들과 각계층 재일동포들은 한결같이 동포되찾기운동은 재일조선인운동이 처한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운동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중앙으로부터 본부, 지부에 이르기까지 동포되찾기운동을 위한 정연한 사업체계가 세워진데 이어 사업방법도 철저히 동포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들의 생활에 밀착되는 방식으로 전환되였다. 본보기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사업도 활기있게 진행되고있다. 각급 총련조직들은 사상과 정견, 단체, 소속에 관계없이 재일동포라면 누구나 화해와 협력, 단합실현의 원칙에서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이로 하여 지금 재일동포사회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조선사람되찾기운동을 적극 벌리던 지난 1970년대처럼 끓어번지고있다.

총련일군들과 핵심동포들은 《우리는 조선사람이다!》, 《찾아가자! 만나자! 우리 동포》, 《빛내이자! 교육전통, 꾸리자! 동포권리복지망》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각계층 동포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가슴마다에 민족의 넋을 심어주고 애국애족의 불을 지펴주고있다.

그 과정에 각급 총련조직들에서는 귀중한 성과와 경험들이 창조되고있다.

동포사회 그 어디서나 단합의 숨결이 세차게 약동하고있는 속에 동포민족권은 나날이 확대강화되고있다.

새 전성기개척으로 충정의 보고를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개척하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이다.

지금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총련의 새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사업을 어버이수령님의 후손, 위대한 장군님의 제자로서의 숭고한 도리를 다해나가는 중대과업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전개해나가고있다.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기 위한 중앙열성자대회와 총련지부일군대회, 《총련분회대표자대회—2012》, 《번영하는 조국과 동포들의 행복을 위하여!》, 《흥하는 동포사회, 찬란한 미래를 우리 손, 우리 힘으로!》라는 구호밑에 성대히 진행된 재일동포청년축전 등은 자기 수령, 자기 조국, 자기 조직에 헌신해온 선대들의 전통과 업적을 계승하며 총련의 애국애족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는 계기로 되였다.

《애국애족의 보폭을 맞추어 기어이 새 전성기의 모습을 갖추자!》라는 구호밑에 벌린 여러가지 대중운동들을 통하여 총련애국사업을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요구에 맞게 비약시켜나갈수 있는 훌륭한 본보기들이 창조되였다.

총련 도꾜도 아다찌지부와 에도가와지부, 가나가와현 쥬호꾸지부, 오사까부 히가시나리지부, 효고현 니시노미야지부와 히메지니시지부, 후꾸오까현 후꾸오까지부, 히로시마현 기따지부, 아이찌와 지바현 본부산하의 지부들을 비롯한 수많은 총련지부들과 계층별단체들의 지부들에서 애국의 기상이 약동하고있다. 이 모든 성과들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령도의 손길따라 재일조선인운동의 초행길을 개척해온 1세동포들의 넋을 이어 불타는 애국의 의지를 발휘한 각지 총련일군들의 헌신적노력의 산물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끊임없이 베풀어주시는 크나큰 믿음과 사랑은 총련이 애국위업의 새 전성기를 신심드높이 개척해나가게 하는 필승의 보검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태양의 찬란한 빛발은 영원토록 총련의 앞길을 밝혀줄것이다. 재일조선인운동의 새 전성기를 기어이 개척하여 영생하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와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정의 보고를 삼가 올리자.

이런 신념의 맹세드높이 이역의 아들딸들은 애국의 진군길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악랄한 탄압만행에 견결히 맞서싸우는 재일동포들

새로운 전성기개척의 열풍으로 끓어번지는 동포사회

애국의 대를 우리가 잇는다.

보다 강화되는 중로관계는 무엇을 시사해주는가

얼마전 로씨야 대통령의 중국방문이 있었다. 중국국가주석 습근평의 초청에 따라 상해에서 진행되는 아시아호상협조 및 신뢰조치회의 제4차 수뇌자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을 찾은것이다. 이를 계기로 두 나라는 친선과 신뢰를 더욱 깊이 하였으며 전략적협조동반자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추동하려는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였다.

중국과 로씨야사이의 전략적협조동반자관계는 오늘날 보다 공고한 형태를 갖추고있다.

지난해와 올해사이에만도 국가수뇌상봉이 여러차례 있었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부단히 확대되였다.

오랜 력사적과정속에 형성발전되고 현시기에 들어와 더욱 두드러지게 부각되고있는 중국과 로씨야의 관계는 두 나라 인민에게 전적으로 유리하며 력사발전에도 긍정적기여로 된다.

특히 강권과 전횡으로 세계정치정세를 좌우지하고 일극화된 《질서》를 세우려는 미국에 대한 결정적반격으로 된다.

로씨야는 중국의 구입계획에 따라 최신다목적전투기 《Cy—35》를 중국에 납입하려 하고있다. 오늘날 로씨야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하는 다목적전투기 《Cy—35》를 구입하게 되면 이 전투기에 토대하여 새로운 전술핵무기운반수단을 제작할수 있으며 중국의 군사력은 한층 높아진다고 한다. 또한 중국과 로씨야는 해군함정들과 잠수함, 보급선 등을 투입하여 중국동해상에서 방공과 대잠수함작전, 봉쇄작전과 보급 등의 대규모적이며 다양한 훈련을 벌리였다.

두 나라사이의 정치군사적련계가 더욱 밀접해짐에 따라 중국과 로씨야를 견제하고 우세를 차지하려던 미국의 패권주의가 무색해졌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은 항상 중국과 로씨야를 자기의 주되는 적수로 여기고 국제문제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고심하여왔다. 령토와 인구수에 있어서는 물론 모든 측면에서 잠재력이 매우 큰 이 두 나라를 완전히 압도하고 질식시켜 저들에게 고분고분하게 만들지 않고서는 직성이 풀리지 않을 미국이다.

미국은 벌써 쏘련시기에 미국우위의 《세계질서》수립을 가로막고 억제하는 강대국의 존재를 체험했으며 새 세기에 들어와 더욱 장성강화되는 중국과 로씨야의 국력을 느끼면서 초조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중국은 이미 국제무대에서 자기의 지위를 든든히 차지했으며 발전속도는 미국을 아연케 하고있다. 미국이 중국에 진 국가채무액은 2013년 11월까지 기록적인 1조 3 170억US$에 이르렀다.

로씨야 역시 다를바 없다.

오바마가 로씨야는 세계강국이 아니라 지역강국에 불과하다고 거만하게 휜소리를 쳤지만 미국방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결과 대부분이 최근년간 로씨야가 더 강해졌으며 이전 지위에 의연 남아있다고 확신하였다.

반면에 미국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점점 더 쇠진해가고있다. 미국의 일부 계층이 현 오바마행정부가 대외정책에서 지난시기와 달리 소극적이고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있지만 사실 그것은 오바마로서도 어쩔수 없는 미국의 현실이고 《유일초대국》의 취약한 능력의 한계이다.

그렇다고 하여 저들의 지위가 위태로와지는데 대해 눈을 펀히 뜨고 보고만 있을 미국이 아니다. 미국은 어떻게 해서나 대국들을 제압하고 지배권을 부지하기 위해 최후의 안깐힘을 다 쓰고있다. 중국을 주되는 목표의 하나로 하고있는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이 그 일환이다.

미국은 랭전시기 대서양에 집중되여있던 미해군의 주력을 이미 아시아태평양지역에로 이동시켰으며 무력을 체계적으로 증강하고있다. 남조선괴뢰들과 합동군사연습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으며 중일사이의 분쟁지역을 미일안전보장조약의 《적용대상》으로 정해놓았다. 또한 일본은 물론 남조선괴뢰들까지 끌어들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미싸일방위체계를 전개하려 하고있다. 이 미싸일방위체계가 우리의 《위협》과 《도발》을 구실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포위환으로 된다는것은 이미 비밀이 아니다.

지난 4월에 있은 오바마의 아시아행각도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의 시위로서 남조선과 중국주변나라들과의 안보련대를 실현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한 세력권을 확장하려는 목적에서 단행된것이다.

로씨야에 대한 포위망도 더욱 좁혀지고있다. 로씨야를 겨냥한 유럽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계속 강행하고있다.

2002년 미국은 1972년에 쏘련과 체결했던 요격미싸일제한조약을 파기하였으며 저들과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적인 미싸일방위체계를 전개하겠다고 공식 선포하였다.

그때로부터 미국은 미싸일방위체계를 체계적으로 완비해왔으며 그 한 고리로 2018년까지 뽈스까와 로므니아에서 요격미싸일기지구축을 완료하려 하고있다.

미군주도의 나토가 로씨야주변에서 군사훈련과 무력확대를 계속하고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B—2》와 《B—52》 등 핵무기탑재가 가능한 미군의 전략폭격기들과 함선들을 동원한 나토군의 대규모군사훈련이 진행되였다.

물론 나토의 미싸일방위체계구축과 군사훈련이 어제오늘에 시작된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들어와 그 규모와 강도, 회수는 더욱 높아지고있다. 미국의 이 모든 모험적이며 도발적인 행동들은 군사분야뿐만이 아닌 국가활동전반에 대한 간섭과 음모들을 동반하고있으며 그런것으로 하여 중국이나 로씨야에 있어서 다같은 공동의 위협으로 된다.

중국과 로씨야가 결코 이러한 현실적위협을 수수방관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하며 공동보조를 취하는것은 응당하다.

미국의 지배밑에 존재하는 세계를 꿈꾸는 극단한 일극화야망과 패권주의는 미국자체에 리로울것이 전혀 없다.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자기의 지배체제만을 확립하려 하면 할수록 다극화를 주장하고 자주와 평등을 지향하는 나라들의 협력관계는 더욱 굳건해진다.

중국과 로씨야의 관계발전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이번에 중국과 로씨야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전면적인 전략적협조동반자관계의 새로운 단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비롯하여 에네르기자원과 전력, 항공, 통신 등 분야의 여러 항목협조문건들을 채택하고 미국이 보란듯이 두 나라 관계를 두터이하였다.

로씨야대통령 뿌찐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국가주석 습근평은 《두 나라가 전면적인 전략적협조동반자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것은 국제적으로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고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수호하는데서 나서는 요구이며 두 나라의 공동의 발전과 번영의 요구이고 세계의 다극화발전의 필연적인 선택이다.》라고 하였다.

이 말에는 세계에서 패권적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날뛰는 미국의 지배주의야망을 로씨야와의 관계강화로 맞받아나가려는 중국의 정책적의도가 담겨있다.

두 초대국의 대결구도에 의해 나라들사이의 관계가 이루어지던 랭전시기도 이미 지나갔고 미국이 《유일초대국》으로 나서서 제 하고싶은대로 놀아대던 독단과 전횡의 시대도 이제는 끝이 났다.

미국은 자기의 처지와 현 국제관계의 추세를 랭정하게 돌이켜보아야 한다.

앞으로 중국과 로씨야를 비롯하여 자주와 정의, 평등과 협조를 지향하는 나라들사이의 관계는 세계 다극화흐름에서 주류를 이루면서 더욱 강화될것이다.

본사기자 리철혁

부흥번영하는 대륙건설을 위하여

오늘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은 력사발전의 거세찬 흐름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아프리카나라들은 대륙적인 통합을 부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고리로 보고 지금으로부터 51년전인 1963년 5월 25일 아프리카나라수뇌자회의에서 아프리카통일기구헌장을 채택하고 아프리카통일기구를 내왔다.

당시 이 기구에는 31개 아프리카독립국가들이 망라되였다.

아프리카나라들은 아프리카통일기구가 발족된 날을 아프리카의 날로 정하고 이날을 뜻깊게 기념하고있다.

오늘 이 기구는 54개 성원국을 가진 전대륙적인 기구로, 아프리카인민들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권위있는 아프리카동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아프리카동맹은 대륙나라들의 주권과 령토완정, 독립을 수호하며 인민들의 사회적해방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아프리카통일기구가 창립된지도 반세기나마 흘렀다. 이 기간 아프리카나라들은 지역적단결과 협조, 부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여왔다.

최근시기에 들어와서만도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지역의 평화와 사회적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적지 않은 정치경제적문제들이 해결되고있다.

또한 농업발전을 대륙의 발전과 번영의 기본열쇠로 보고 이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모든 성원국들이 농업발전에 력량을 총집중하며 국가예산의 10%이상을 여기에 돌려 아프리카나라 인민들이 빈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경제장성률을 7%수준에서 유지할 목표를 세우고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농업발전을 위한 효률적인 기구들을 설립하는 등 대책들을 세우고있다.

지금 아프리카나라들은 2015년까지 아프리카합중국을 창건하고 2017년까지는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아프리카의 현실은 제국주의자들이 대륙에 대한 신식민주의적지배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지만 그 무엇으로써도 단합된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있다.

부흥번영하는 대륙을 건설해나가고있는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은 좋은 성과를 거둘것이다.

김수진

ㄱ-410816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